

한국수어학

김만영 · 원성옥 · 허일 · 홍성은

< 차 례 >

1장 언어, 수어, 제스처	1
2장 공간 활용과 동시성	9
3장 비수지표지	25
4장 도상성	32
5장 수어소	39
6장 부정	53
7장 수어의 시제와 상	72
8장 수어 습득	80

1장 언어, 수어, 제스처	1
1. 제스처와 수어	1
2 수어의 언어보편적 특성	2
1) 자의성	3
2) 분절성	4
3) 생산성	5
4) 역사성	6
5) 전위성	6
6) 문화적 전달	7
2장 공간 활용과 동시성	9
1. 한국수어의 동사 유형	10
2. 비수지 표지에 의한 문장의 종류 표시	15
3. 공간 활용과 동사의 위치	16
4. 참여자에 따른 수어 표현의 차이(존대와 낮춤, 주체 표시)	18
5. 한국어 사용자가 한국수어를 배우기 어려운 이유	21
3장 비수지표지	25
1. 감정 표현(reflections of emotional states)	25
2. 구성된 행동(constructed action)	26
3. 대화 규제(conversation regulators)	26
4. 기능어(문법표지 grammatical markers)의 역할	26
5. 음운의 역할	27
6. 수식어(modifiers such as adverbs)의 역할	28
4장 도상성	32
1. 대체 기법(Substitutive technique)	33
2. 손이용 기법(Manipulative technique)	33
3. 스케치 기법(Sketching technique)	34
4. 측정 기법(Measuring technique)	35
5. 지시 기법(Indexing technique)	35

5장 수어소	39
1. 수형	39
1) 한국수어의 수형소	39
2) 수형에서 의미에서 차이를 가져 오는 최소대립쌍	41
2. 수위	42
1) 한국수어의 수위소	42
2) 수위에서 의미에서 차이를 가져 오는 최소대립쌍	42
3. 수동	43
1) 한국수어의 수동소	43
2) 수동에서 의미에서 차이를 가져 오는 최소대립쌍	43
4. 수향	44
1) 한국수어의 수향소	44
2) 수향에서 의미에서 차이를 가져 오는 최소대립쌍	44
5. 비수지 기호	45
1) 한국수어의 비수지 기호	45
2) 비수지 기호에서 의미에서 차이를 가져 오는 최소대립쌍	45
6. 음소의 배열: 음절 구조	46
7. 수어의 음운과정(Phonological Processes)	50
1) 움직임(movement)의 삽입	50
2) 접촉(hold)의 삭제	50
3) 음운도치(metathesis)	51
4) 동화(Assimilation)	51
6장 부정	53
1. 부정과 부정표현	53
1) 부정의 개념	53
2) 부정표현의 정의	56
2. 부정문의 형성과 분류	57
1) 부정문의 형성	57
2) 부정문의 개념	58
3) 한국어 부정문의 분류	59
4) 한국수어의 부정문의 분류	61
3. 한국수어의 부정	62

7장 수어의 시제와 상	72
1. 시제(tense)	72
1) 어깨 근처 앞-뒤 타임 라인	72
2) 가슴 앞 앞-뒤 타임 라인	73
3) 가슴 앞 좌-우 타임 라인	74
4) 몸 앞 위-아래 타임 라인	75
2. 상(Aspect)	76
8장 수어 습득	80
1. 초기 조음 발달 특성	80
2. 수화 습득 과정	81
3. 듣는 부모 밑의 농아동의 수화 습득	82
1) 생득화 가설	82
2) 수지부호 환경에서의 언어 습득	83

1장 언어, 수어, 제스처

한국어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인 것처럼 한국수어(이하 수어라 한다)는 한국 사회에 사는 농인과 그 농인들과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의 언어이다. 한국어와 수어는 언어로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다만 그 구현 양식에서 다르다. 즉, 한국어는 청각을 통해 수용하고 음성으로 표현되는 반면, 수어는 시각을 통해 수용되고 손과 몸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되는 시각-운동 체계이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수어를 제스처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여 농인들은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추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오해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과 더불어 공식적으로 더 이상 수어가 언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언어**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시각언어 체계는 생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장에서는 수어가 시각적 의사소통 기호인 제스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수어와 제스처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수어가 갖는 언어 보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스처와 수어

제스처란 단순한 몸짓이나 손짓이 아니라, 손이나 얼굴 그리고 몸을 이용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비음성 **의사소통 도구**이다. 수어 역시 손과 얼굴 그리고 몸을 이용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도구이다. 이렇게 수어는 제스처와 마찬가지로 움직임을 통해 전달하고 시각을 통해 수용하는 의사소통 도구로, 수어 역시 제스처의 일종이다. 그러나 제스처와 수어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즉, 제스처는 그 움직임과 의미의 관계가 관습적이지 않고 자연적이므로 수어를 모르는 청인들도 의미를 공유하나, 그 의미가 애매모호할 수 있다. 반면 수어는 그 움직임과 의미의 관계가 관습적이고 규칙의 지배를 받아 그 의미가 모호하지 않으며, 수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제스처 중에서 특별히 규칙의 지배를 받는 특정한 제스처를 수어라 한다. 그림 1.1은 제스처와 수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Baker & Cokely,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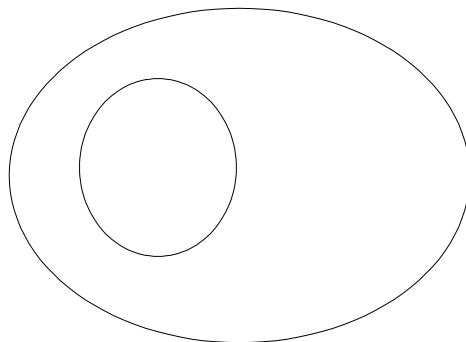


그림 1.1 제스처의 한 부분으로서의 수어(Baker & Cokely, 1980에서 인용)

제스처는 몸과 손 그리고 얼굴의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음성언어나 시각언어인 수어와 함께 나타나기도 하여 그 언어적 발화에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 정보를 더하기도 한다고 최근 제스처와 관련된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스처는 여전히 그 의미의 해석에서 모호하기도 하고, 그 형태가 전체적(global)이며 통합적(synthetic)이다.

수어 역시 제스처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손의 모양과 움직임뿐 아니라, 머리와 몸의 움직임 그리고 얼굴 표정, 시선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어의 이러한 요소들은 제스처와는 달리 그 요소를 하나씩 분절(segment)해 낼 수 있다. 또한 그 형태가 분석적(analytic)이어서 음성언어에서처럼 각 요소들이 합쳐져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또한 특정한 규칙의 지배를 받아 문장을 구성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어로서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Őzyűrek(2012)는 제스처에서 판토마임, 상징(emblem), 그리고 수어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체 상에서 각각의 언어적 특성과 관습화 그리고 기호학적 관점에서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즉, 제스처와 판토마임은 관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에 상징과 수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집단에서 그 형태와 의미가 관습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스처와 판토마임에서는 언어가 갖는 속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상징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어에서는 완전한 언어적 속성이 나타난다. 또한 기호학적 특성에서 보면, 제스처와 판토마임은 전체적이며 통합적인 특성을 갖는 반면에 수어는 분절적이고 분석적인 특성을 갖고 상징의 경우에는 분절적이기는 하지만 통합적인 형태를 갖는다. 이를 요약하면 <표 1.1>과 같다.

<표1.1> 제스처, 판토마임, 상징, 수어의 특성

	제스처	판토마임	상징	수어
관습화	-	-	+	+
언어적 특성	-	-	부분적으로	+
기호학적 특성	전체적 통합적	전체적 통합적	분절적 분석적	분절적 분석적

2 수어의 언어보편적 특성

앞에서 우리는 제스처와 수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수어는 시각적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제스처의 일종이다. 그러나 특별히 수어는 일반적인 제스처와는 달리 언어가 갖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즉, 모든 의사소통 도구 중에서 특별히 언어가 갖는 독자적인 특성을 수어도 역시 갖고 있다. 전통적으로 언어학에서는 언어의 형태를 소리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언어학에서는 전달 양식이 다른 수어도 언어

가 갖는 속성을 완벽히 갖추고 있음을 인정한다. 본 장에서는 Hockett(이건수, 2000에서 재인용)가 제시한 언어의 독자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수어도 이러한 언어보편적 특성을 갖추고 있음을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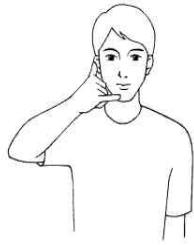
1) 자의성

언어는 형태와 그 형태가 나타내는 의미로 이루어진다. 이 언어의 형태와 의미의 관계가 자연적인가 관습적인가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어 왔다. 오늘날 언어학자들은 이 둘의 관계가 자연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언어 기호의 특성으로 자의성을 들고 있다. 이는 언어의 형태와 의미는 임의적이고 관습적이라는 데 동의하기 때문이다. 즉, 언어는 형태와 의미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형태가 언어마다 다르다는 것이 바로 언어 형태와 의미의 관계가 관습적이라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언어학자들은 의사소통 도구 중 특별히 인간의 언어는 자의성이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자의성이란 기호가 사물이나 활동의 형태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 기호의 형태와 의미가 상호 독립적이므로 언어의 형태로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임의성이라고도 한다. 기호의 형태가 사물이나 활동의 형태를 반영하는 도상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언어를 모르면 그 언어의 형태를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시각언어인 수어는 음성언어보다는 어휘에서 도상성을 나타낸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전화]와 같은 한국수어는 그 수어 어휘를 보고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 [집]과 같은 수화도 양손으로 집의 지붕 모양을 만들어 나타내므로 그 의미를 유추하기 쉽다. 이것은 수어의 도상성이며, 시각언어인 수어는 음성언어와는 달리 도상성이 강하다.

그러나 수어에서 많은 어휘들은 단순화된 사물이나 활동의 형태로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도상성만 가지고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수어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사물이나 활동의 형태를 단순화시키는 과정의 설명도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교사]와 같은 수화 단어는 한국수어를 모르는 사람은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 한국수어 어원사전(2003)에 보면 [교사]라는 수화는 일제강점기 통치의 산물인 교원의 제복 소매 끝에 있는 두 줄에 그 어원의 실마리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형성 과정을 유추하기는 쉽지 않다. [학생]이라는 수화도 어원적으로는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있는 옛날 중·고등학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시각언어인 수어는 기저 이미지인 도상성에 의해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수어를 모르는 사람은 그 수어를 보고 ‘교사’나 ‘학생’이라는 의미를 유추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수어 어휘에는 이렇게 수어의 형태를 보고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 이것은 도상성 또는 기저 이미지를 기초로 해 만들어진 수어 어휘에도 자의성이 있음을 입증한다. <그림1>은 도상성이 있는 수어 어휘이며, <그림2>는 자의성이 있는 수어 어휘이다.



[전화]



[선생님]

<그림 1> 도상성이 있는 수화 어휘

<그림 2> 자의성이 있는 수화 어휘

출처: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언어가 자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세계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고 같은 사물이나 의미를 알리는 이름이 언어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처음 수어를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수어는 만국공통어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어는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일본수어에서 ‘월요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가 다 다른 것이다.



1



2



3

<그림 3> '월요일'이란 의미의 한국수어, 일본수어, 미국수어

1. 출처: 『한국수어사전』
2. 출처: 『手話入門』
3. 출처: 『The America Sign Language Hand Shape Dictionary』

2) 분절성

언어는 복잡한 내적 구조를 가지는데, 그 구조는 작은 단위로 분리할 수 있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있다. 즉, 문장을 단어로, 단어를 형태소로, 다시 음소로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언어 기호는 작은 단위로 세분될 수 있으며, 다시 의미 단위를 형성하기 위해 결합한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분절성 또는 분리성이라 한다. 그에 비해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는 그들이 표현하는 소리나 움직임(신호)을 작은 단위로 분리해

낼 수 없으며, 각각의 신호를 결합하여 다른 의미 전달 체계로 만들어 낼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제스처는 수어와 같이 시각-움직임으로 그 양식은 같지만 그 움직임을 분리해 내어 그 각각의 구성 요소를 결합하여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스처는 언어적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수어는 양식 면에서는 제스처와 같지만 그 움직임을 분리해 낼 수 있으며 그것들을 다시 결합하여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즉, 수어에서도 문장을 단어로, 그 단어를 형태소로, 다시 음소에 해당하는 수어소로 분리할 수 있다.

음성언어의 경우 단어에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음소 즉,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자음과 모음들이 결합해 단어를 생성해 낸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보면 ‘달’이라는 단어는 [ㄷ] [ㅏ] [ㄹ]이라는 세 개의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ㄷ] 소리를 경음화시켜 [ㅌ]으로 바꾸면 ‘딸’이라는 전혀 의미가 다른 단어가 된다. 그리고 ‘달’과 ‘딸’이라는 이 두 단어에서 보면 2개의 소리가 같지만, 의미에서 전혀 관계가 없다.

수어의 경우는 1960년대 미국의 스토키(Stokoe)가 미국수어에서 수어를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를 분리해 냄으로써 수어가 언어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수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수어 단어는 음성언어의 음소에 해당하는 수어소를 기본 단위로 사용해 일정한 결합 원리에 따라 의미 단위를 생성해 낸다. 음성언어의 형태가 음소를 자음과 모음 그리고 비분절적 요소인 운소로 구성되어 있듯이 수어의 형태는 손의 모양인 수형소, 손의 방향인 수향소, 손의 위치인 수위소, 손의 움직임인 수동소, 그리고 손 이외의 얼굴표정이나 몸의 움직임과 같은 비수지표지(비수지기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분리해 낼 수 있다.

한국수어의 예를 들어 보면, [닭]이라는 수어는 다섯 손가락을 모두 편 손 모양(수형소)을 손바닥을 왼쪽으로 하고(수향소) 엄지손가락을 이마에 갖다 댄 채로(수위소) 손가락을 각자 움직인다(수동소). 그리고 이때 손의 위치를 이마에서 코로 바꾸면 [바보]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수화 단어가 된다. 이 두 수화 단어는 수위소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같지만, 그 의미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수어소를 다루는 장에서 다룰 것이다.

3) 생산성

또 하나의 언어의 속성은 분절해 낸 요소들을 다시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생산성 또는 창조성이라 한다. 그 어휘의 수가 제한적이라도 어휘의 배합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또 단어들의 연결을 달리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언어는 다른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 달리 무한한 수의 문장을 만들어낸다. 또한, 인간은 지금까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성 또는 창조성은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언어는 다른 의사소통 체계와는 달리 특정한 규칙의 지배 하에서 무한히 생산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고 들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때는 그 언어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물론 언어에 규칙에서 벗어나는 비규칙적인 현상도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규칙의 지배를 받으며 체계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언어는 체계적이며 규칙의 지배를 받으면서 동시에 생산적이다.

수어 역시 음성 언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어휘와 어휘의 복합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수화 단어를 생성해 낸다. 예를 들어 [결혼]이라는 수화 어휘와 [남자]라는 수화 어휘를 결합해 [남편]이라는 단어를 생성해 내고, [결혼]이라는 수화 어휘와 [여자]라는 수화 어휘를 결합해 [아내]라는 단어를 생성해 낸다. 또한 이렇게 복합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규칙성이 발견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형태론(수어의 단어 구조)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또한 [집], [가다]라는 단어를 배열해 '집에 가다'라는 평서문의 문장을 생성해 내는가 하면, 여기에 의문을 나타내는 비수지 기호를 더해 의문문을 만들어내고, [아직]이라는 수화 단어를 첨가해 '아직 집에 가지 못했다'는 의미의 부정문도 만들어 낸다.

4) 역사성

언어는 다른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는 달리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그 상호 작용의 결과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점 변한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유기체처럼 변하는 언어의 특성을 역사성이라 한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어휘가 탄생하기도 하고, 변화하거나 없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언어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와 약속에 따라 전개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휘의 조어나 변천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수어 역시 컴퓨터, 인터넷과 같이 시대를 반영해 새로운 단어나 수어 어휘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가 변화거나 불필요한 어휘는 없어지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많아지고 사회 참여가 빈번해지면서 그에 필요한 수어어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종플루'나 '메르스'가 유행하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어휘가 생겨나 널리 사용되었으며, 노인 농인들이 사용하던 수어는 사라지기도 한다. 특히 수어 어휘는 경제성 원리에 따라 간편하고 수월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5) 전위성

동물들은 소리나 움직임을 통해 위험을 전달하기도 하고 꿀벌들도 춤(움직임)의 방향이나 속도 등을 통해 꿀이 있는 곳의 위치와 품질까지도 전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들의 의사소통은 현재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사실만을 전달한다. 동물들은 앞으로 위험이 있을 것이며, 어제는 꿀이 없었지만 내일은 꿀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전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 언어로는 지금과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과거와 미래의 일, 또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거짓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을 언어의 전위성(轉位性: displacement)이라 한다. 수어 역시 음성 언어와 마찬가지로 현재나 즉각적인 상황 뿐만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수어를 통해 과거의 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추측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도 있다.

6) 문화적 전달

언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한다. 따라서 어떤 언어를 습득하느냐는 어떤 언어 문화권 내에서 사느냐에 달려 있다. 즉,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문화권에서 살면서 한국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한국인이라고 하여도 한국어에 노출되지 않고 영어 문화권에 살면서 영어에 노출되면 한국어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문화적 전달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 습득은 유전적이다. 고양이가 개들과 함께 산다고 ‘멍멍’ 짖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수어 역시 언어임으로 문화적 전달이라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농인이라고 모두 수어를 습득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어 역시 수어 문화권에서 수어에 노출되어야 습득이 가능하다. 청인이라도 농인 부모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와 자연스럽게 수어를 사용하면서 습득하게 되고, 농인이라도 수어에 노출된 적이 없으면 수어를 습득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음성언어와 다른 양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수어 역시 언어임으로 언어적 속성을 갖추었음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개별 언어들은 모든 언어가 가지는 언어 보편적 특성과 더불어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수어도 이러한 언어 보편적 특성과 더불어 시각 언어 체계라는 양식의 특성으로 인한 다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다른 특성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공간성, 동시성, 도상성, 비수지기호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들에서 다루기로 한다.

참고문헌

- 강범모(2005). 언어: 풀어 쓴 언어학 개론. 서울: 한국문화사.
- 국립국어원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7). 한국수화사전(개정판). 도서출판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 원성옥·허일·장은숙(2007). 기초한국수화. 경기도: 한국재활복지대학.
- 이건수(2000). 언어학 개론. 서울: 신아사.
- Baker, C., & Cokely, D.(1991). American Sign Language.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Ozyurek, A. (2012). Gesture. In R. Pfau, M. Steinbach, & B. Woll (Eds.),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pp. 626-646). Berlin: Mouton.

2장 공간 활용과 동시성

한국수어는 음성을 표현양식으로 사용하는 영어나 한국어와 달리 손과 신체, 얼굴과 함께 공간을 활용해 의미 정보와 문법 정보를 전달하는 시각언어다. 즉, 한국수어는 의미와 문법 정보가 달라지면, 음성언어에서 음성에 변화가 있듯이 손에 담긴 정보나 비수지표지(non-manual marking), 공간 정보 등 시각 요소가 달라진다. 한국수어로 대화하는 한국 농인은 의미와 문법이 달라지면 달리 움직이고 달리 멈추며, 이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상대방이 볼 수 있게 표현한다.

이처럼 한국수어는 시각언어로서, 생각과 감정 등을 표현하기 위해 손(모양, 위치, 방향, 움직임)과 비수지표지(Non-Manual Markings, 얼굴 표정, 눈, 눈썹, 코, 입, 입술, 볼, 턱, 시선, 몸의 방향, 공간 설정 및 활용 등)를 조음자(articulator)로 사용한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한국수어를 보존하고 교육하고 보급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한국에서 수어를 배우고 수어로 대화하고, 수어를 교육한다고 할 때, 해당 맥락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다양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즉, 손을 표현양식으로 사용하고 손을 움직여 대화하고, 한국어-수화 통역을 하는 경우에도 ‘수화’ 또는 ‘수어’라고 불리는 언어가 반드시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가 아닐 수 있다. 한국수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수화가 표현되고 사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수어(KSL)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수지 한국어’나 ‘손 한국어’, ‘수지 구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손을 표현 양식으로 사용하나 한국어 기반으로 표현되는 언어를 분류하기도 한다.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는 한국어의 음성 버전, 문자 버전(한글), 점자 버전(한글점자) 등이 있듯이 한국어의 손 버전(Signed Korean)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한국어인데 손을 표현양식으로 한 한국어라는 뜻이다. 따라서 언어학적으로는 한국어이다.

수지 한국어(Signed Korean, SK)는 한국수어 단어를 차용하여 표현한다. 그러나 한국수어 단어를 한국수어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단어(한국수어의 뜻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한국어 단어)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수지 한국어는 한글점자처럼 한국어를 손(한글점자의 경우 6점자)으로 표현한 것으로, 한국어 문장에 담겨 있는 의미 정보와 문법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한국어 사용자가 수지 한국어를 산출할 때는 자신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생각(한국어로 떠오른 생각)을 통역(interpretation)이 아니라 음역(transliteration)을 하게 된다. 즉, 한국어 문장의 구성요소를 한국어 단어 나열 순서에 따라 한국어 단어(또는 형태소)에 해당하는 한국수화 단어를 찾아 나열해 간다. 이 때 수지 한국어(SK)는 한국어(Korean)이므로, 문장의 구성과 완성, 문장 성립 여부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히 수지 한국어는 한국어를 기반으로 수어 단어를 한국어 단어처럼 표현하므로, 한국수어와 달리 공간 활용(use of space) 없이 수화자(수어자) 앞 중립 공간(∅)에

수어 단어를 선형적으로 나열한다. 수지 한국어는 한국어의 어순과 단어 특성에 따라 문장을 구성하고 완성하므로, 한국어 동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즉, 수어 단어를 한국어 단어에 대응시켜 선형적으로 중립 공간에 나열하기 때문에, 공간을 이용해 의미와 문법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의미와 문법 정보 전달을 위해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여러 의미 정보와 문법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경우도 드물다.

이에 비해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 KSL)는 수지 한국어(SK)와 달리, 한국어가 아니며,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국어 단어에 한국수어 단어를 대응시켜 가며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 언어인 한국수어 문법에 따라(공간 활용 및 동시성, 도상성, 분류사 등), 한국수어 문장을 구성하고 표현한다. 특히 한국수어는 다중층위 언어(Multi-tier language)로서, 한국어 동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한국수어 동사의 특성이 반영된 한국수어 문장을 표현한다.

이에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수지 한국어와 달리 한국수어가 각각의 동사 특성에 따라 공간 활용과 동사에 표현되는 정보에 따라 어떤 수화 문장을 산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수어의 동사 유형

수어 동사는 동사에 붙는 접사에 기초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일반동사(plain verb): 인칭과 수에 따라 굴절하지 않고, 행위 장소에 따라 굴절하지 않음
- 일치동사(agreement verb): 인칭, 수에 따라 굴절하며, 행위 장소에 따라 굴절하지 않음
- 공간동사(spatial verb): 인칭, 수에 따라 굴절하지 않지만, 행위 장소에 따라 굴절함

한국수어에서 동사 유형별 예는 다음과 같다.

- 일반동사



- 일치동사



- 공간동사



일치동사의 경우, 손의 방향이나 출발점-끝점에 의해 주어와 간접 목적어(누구에게)를 결정하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공유되고 인지되는 공간(1인칭과 2인칭, 3인칭 공간) 혹은 공간 설정4)을 통해 특정 의미(등장 인물 또는 사물, 사전)를 갖게 된 특정 공간을 활용하여(설정된 공간에 일치동사를 시작하거나 끝내는 것) 주어를 표시한다.

- 1) 수화 그림과 영상은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http://sldict.korean.go.kr>)에서 확인 가능
- 2) 일치동사의 시작점은 행위의 주체(주어), 끝점은 행위의 대상(간접 목적어)을 나타내며, 동사의 Glossing 좌우에 숫자나 문자로 표기한다. 1_1 준다 2_2 는 1인칭이 2인칭에게 주는 상황을 나타내고, 2_2 준다 1_1 는 2인칭이 1인칭에게 주는 상황을 나타내고, 1_1 준다 3_3 는 1인칭이 3인칭에게 주는 상황을 나타내고, 3_3 준다 2_2 는 3인칭이 2인칭에게 주는 상황을 나타내고, $3a$ 준다 $3b$ 는 3인칭 A가 3인칭 B에게 주는 상황을 나타낸다. 그리고 a 준다 b 는 공간 a에 지정된 사람이 공간 b에 지정된 사람에게 주는 상황을 나타낸다.
- 3) 공간동사는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시작점과 끝점으로 표현한다. 이사를 부산에서 대전으로 한다면, 부산을 공간 a에 지정하고, 대전을 공간 b에 지정한 후, 이사하다 공간동사를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냄으로써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표현한다.
- 4) 해당 공간이 누구 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화자와 청자가 공간의 의미를 공유하는 것. 남자 수화를 특정공간 a(예, 수화자의 왼쪽 공간)에서 하고(남자a로 표시, 남자 수화를 공간a에서 했다는 의미), 여자 수화를 특정공간 b(예, 수화자의 오른쪽 공간)에서 하면(여자b), 문장이 끝나거나 새로 공간이 설정되기 전까지 공간 a는 남자를 의미하고, 공간 b는 여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공간 설정된 상황에서 1_1 만나다a 수화를 하면 '내가 남자를 만나다'를 의미하게 되고, 2_2 가르치다b 수화를 하면 '너는 여자를 가르친다'를 의미하게 된다.

t₅)

(1) [한국수어] 농학교 교사_a 농학생_b 한국수어_c _a가르친다_b

[한국어] 농학교 교사는 농학생에게 한국수어를 가르친다.

t

(2) [한국수어] 농학교 교사_a 농학생_b 한국수어_c _b가르친다_a

[한국어] 농학교 학생은 교사에게 한국수어를 가르친다.

수어 문장 (1)과 (2)는 NMM(t 표현)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수어 단어도 동일하고, 공간 설정도 동일하게 했지만(한국어 단어를 이용하여 주석(gloss)을 달긴 하였으나, 한국어 사용자의 눈으로는 어순도 동일하다), 일치동사의 특성에 따라(시작점이 행위의 주체, 끝점이 행위의 대상) (1)의 주어는 교사이고, (2)의 주어는 농학생이다⁶). 이와 같이 한국어 동사(가르친다, 가르쳤다)와 달리 한국수어의 일치동사는 동사만을 보고도 주어와 목적어를 알 수 있다(문장 속에서는 교사가 가르치는지, 학생이 가르치는지 알 수 있고, 수어 동사만을 떼어놓고 본다 해도 a가 가르치는지, b가 가르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수어 동사 중 일반동사(plain verb)과 공간동사(spatial verb)는 인칭에 따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손에 담긴 정보만을 보아서 주어 알 수 없고, 앞의 단어 중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한국어 사용자들이 한국수어를 배울 때 흔히 보이는 이해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한국 농인들은 손에만 의미 정보와 문법 정보를 담아 표현하지 않는다. 한국수어는 손도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⁷. 즉, 한국 농인들은 일반동사와 공간동사의 경우에도 동사와 함께 주어 정보를 표현한다.

5) t는 topic expression의 약자로서, 한국수어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수어에서 화제화나 주어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NMS(비수지기호)로, 눈썹이 올라가고, 눈이 커지는 등의 NMS가 수화 단어와 함께 표현된다. 수화 단어와 함께 이러한 눈썹과 눈 정보가 동시에 제시된다는 점을 단어 위에 밑줄을 그어 표현한다.

6) 일치동사의 시작점뿐만 아니라 (11)과 (12) 수어 문장에서는 NMS(t)를 보고도 누가 주어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한국수어 동사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t에 의한 주어 결정 및 인식은 논하지 않는다.

7) 이런 측면에서 한국농인의 언어를 수어(手語) 혹은 수화(手話)라는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국수어와 미국수어를 영어로는 Korean sign language와 American sign language로 부르고, Korean hand language나 American manual language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농인들의 언어가 손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수어와 미국수어는 손도 사용하고, 눈썹, 시선, 입, 입술, 공간 등 손 이외의 다양한 조음자를 활용한다.

- _____ t _____ t 몸의방향->a 몸의방향->b
- (3) [한국수어] 아버지_a 어머니_b 부산_a 태어나다 서울_b 태어나다
 [한국어] 아버지는 부산에서 태어나시고, 어머니는 서울에서 태어나셨다.

- _____ t _____ t 시선->b 시선->a
- (4) [한국수어] 아버지_a 어머니_b 부산_b 태어나다 서울_a 태어나다
 [한국어] 아버지는 서울에서 태어나시고, 어머니는 부산에서 태어나셨다.

[태어나다] 수어 동사는 일반동사이다. 그러나 (3)과 같이 몸의 방향을 공간 설정된 특정 공간으로 향하고, [태어나다] 수화를 하면 누가 태어난 것인지 알 수 있다(공간 a를 향하여 몸을 틀고 수화를 하면, 공간 a 즉 아버지가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또한 (4)와 같이 시선을 특정 공간을 향하면서 [태어나다] 수화를 하면 역시 누가 태어난 것인지, 즉 주어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수어에서는 좌든 우든 중앙이든 특정 공간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설정하고(공간 설정), 동사를 표현할 때 동사만 손을 움직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방향이나 시선과 같은 비수지 표지를 동사와 함께 동시에 표현하여 주어가 누구인지를 표현한다(공간 활용 및 동시성).

한국수어 일반동사(plain verb)는 인칭과 행위 장소에 따른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손에 담긴 정보만으로는 행위의 주체나 대상을 알 수 없으며, 공간 설정 및 활용, 시선이나 몸의 방향 등을 통해 행위의 주체나 대상을 표현한다.

- _____ t _____ t 시선->a 시선->b
- (5) 동해물_a 백두산_b 마르다 닳다
 [한국어]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다.

- _____ t _____ t 시선->b 시선->a
- (6) 동해물_a 백두산_b 닳다 마르다
 [한국어]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다.

(5)와 (6)는 한국어로는 같은 의미로, [동해물] 수화와 [백두산] 수화를 특정 공간에서 표현하여 공간 설정하고(동해물 수화는 왼쪽에서, 백두산 수화는 오른쪽에서) [마르다] 동사 수화와 [닳다] 동사 수화를 할 때는 몸의 방향이나 시선을 설정된 공간으로 향하여 해당 동사의 주어가 무엇인지 표현하고 있다.

몸의방향->a

_____ t 시선->a t 시선->1
(7) 나 부모a 나 낳다 나 감사하다

[한국어] 부모님이 나를 낳고, 나는 부모님께 감사한다(나를 낳으신 부모님께 감사한다).

(7)은 a 공간(예, 수화자의 오른쪽)을 ‘나의 부모님’으로 설정하고, [낳다] 동사의 주체가 부모이고, [감사하다] 동사의 주체는 ‘나’이고 대상은 ‘부모님’임을 시선이나 몸의 방향을 그 공간을 향하게 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수어에서는 참여자(부모님과 나) 중 누가 행위 주체인지를 비수지 표지(t와 시선)를 통해 표현하여 동사를 보면 누가 낳고 누가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알 수 있다(이러한 특성 때문에 수어는 다중층위 언어(Multitier language⁸⁾)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치 동사(agreement verb)의 경우, 인칭에 따라 시작점-끝점 또는 손의 방향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행위의 주체와 대상을 표현한다.

_____ t
(1) [한국수어] 농학교 교사a 농학생b 한국수어c a가르치다b
 [한국어] 농학교 교사는 농학생에게 한국수어를 가르친다.

(1)의 예는 두 참여자(교사와 농학생)가 공간 설정되고(예, 교사는 왼쪽, 농학생은 오른쪽), 가르치다 동사 시작점에 의해 교사가 주어임을 표시하고 있다. 일치 동사는 손에 담긴 정보(위치나 방향)를 통해 행위의 주체와 대상을 알 수 있다.

공간 동사(spatial verb)의 경우, 인칭에 따른 변화는 없으나, 행위 장소에 따라 변하는 동사이다.

_____ t _____ t 시선->a 시선->b
(8) 남자a 여자b 서울c 수원d 이사하다c->d 이사하다d->c
 [한국어] 남자는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하고, 여자는 수원에서 서울로 이사하다

_____ t _____ t _____ t
(9) 수화통역a 무엇 한국어b 한국수어c 바꾸다b->c 그리고 바꾸다c->b

가리키기->d⁹⁾ 의미하다

8) 한국수어 동사는 어떤 행위를 하는지(어찌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행위의 주체와 대상이 수어 동사와 함께 동시에(층층이) 표현된다. (77)의 예에서 감사하다 수화 표현에는 ‘감사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선을 통해 행위의 주체가, 몸의 방향을 통해 행위 대상이 동시에 다층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한국어와 달리 행위의 주체와 대상을 동사의 의미와 함께 파악할 수 있다.

[한국어] 수화통역은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고,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8)은 두 참여자(남자와 여자)를 공간 설정하고, 각 참여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하는지를 [이사하다] 수화의 시작점과 끝점을 통해 표현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위의 주체는 시선을 통해 동시에 표현된다.

(9)는 무엇을 무엇으로 통역하는지를 한국어와 한국수어 각 언어를 공간 설정한 상태에서 [바꾸다] 수화의 시작점과 끝점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2. 비수지 표지에 의한 문장의 종류 표시

한국어에서는 동사의 활용을 통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을 표현한다. 그에 반해, 한국수어에서는 동사와 함께 비수지 표지를 통해 문장의 종류를 동시에 표현한다.

(10) 평서문:	가다
	<u>nmm(부정 표지)¹⁰⁾</u>
부정문:	가다
	<u>nms(의문 표지)¹¹⁾</u>
의문문:	가다
	<u>nms(명령 표지)</u>
명령문:	가다
	<u>nms(청유 표지)</u>
청유문:	가다

(10)에서처럼 한국수어에서는 한국어처럼 동사의 어미를 활용하거나 문장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수어 어휘 표현을 추가하여 문장의 종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지 표지를 통해 문장의 종류를 표현한다. 즉, 한국수어 동사에는 한국어 동사처럼 문장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정보는 담겨 있지 않으나, 비수지 표지를 통해 표현된 정보가 동

9) d는 [바꾸다] 수화가 이루어지는 공간, b와 c 중간 정도의 공간

10) 고개를 좌우로 흔들거나 입을 크게 벌리는 등 부정을 의미하는 표정이 나타날 수 있다

11) 묻는 얼굴 표정으로, 눈썹이 올라가고,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고, 머리카락 어깨를 내밀기도 한다.

시에 다층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수어 동사와 함께 다층적으로 표현된 정보를 통해 문장의 종류를 알 수 있다.

3. 공간 활용과 동사의 위치

한국어는 SOV가 기본 어순으로, 동사는 맨 뒤에 위치하고, 목적어와 동사를 꾸미는 말이 붙거나 부사어, 보어 등의 정보들이 추가되면 모두 동사 앞에 위치하므로 주어와 동사 간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특히 안은문장(겉문장 중 내포문)은 안은문장의 동사 앞에 안긴문장이 위치하므로 두 개 이상의 동사가 제시되고, 주절의 주어와 동사 간 거리가 멀어 주어-동사 호응 관계(이 주어의 동사가 무엇이고, 이 동사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알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한국어 동사 자체 또는 함께 제시되는 정보 등에 주어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한국수어 동사 중 일치동사는 시작점-끝점 또는 손의 방향(source-target)으로 주어를 표시하고, 일반동사와 공간동사의 경우도 일치동사처럼 인칭에 따라 굴절하지는 않으나, 문장 앞에서 공간 설정이 된 경우, 공간을 활용하여 NMS(시선, 몸의 방향, 역할 변경, 구성된 행위 등)를 통해 주어를 특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수어 동사도 한국어처럼 사전에 공간 설정이 필요하므로, 주어나 목적어보다 뒤에 위치하기는 하나(수어가 일부 어순의 제약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어처럼 항상 모든 문장의 맨 뒤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와 달리 관형형 어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꾸미는 말이 앞이 아니라 뒤에 오고, 영어처럼 기자회견식으로 추가 정보를 확장해 나갈 수 있기도 해서 수어 동사 뒤에 여러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11) $\frac{t}{\text{나}}$ 학교 장소_a 병원_b 가다_{->a} 완료 가다_{a->b} $\frac{\text{시선->1}}{\text{가다}}$

[한국어] 나는 학교에 갔다, 병원에 간다.

(12) $\frac{t}{\text{어제}}$ 나 어머니_a 병원_b 입원하다_b 왜 $\frac{\text{시선->a}}{\text{다}}$ 다리 아프다

[한국어]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셔서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

(13) a. 아버지_a 어머니_b 항상 $\frac{\text{시선->a}}{\text{피곤하다}}$ $\frac{\text{시선->b}}{\text{걱정하다}}$

시선→b 시선→a
b. 어머니a 아버지b 항상 피곤하다 걱정하다

시선→a 시선→b
c. 아버지a 어머니b 피곤하다 항상 걱정하다
d. 아버지a 항상 피곤하다 모습 어머니b b보다a 걱정하다
e. 아버지 항상 피곤하다 때문 어머니 걱정하다

시선→a 시선→b
f. 아버지a 피곤하다 항상 어머니b b보다a 걱정하다
g. 어머니 걱정하다 what(or why) 아버지 피곤하다 항상

역할 변경: 아버지
h. 어머니 걱정하다 아버지 피곤하다 항상

역할 변경: 아버지 역할 변경: 어머니
i. 아버지 피곤하다 항상 어머니 걱정하다

[한국어] 어머니는 항상 피곤해 하시는 아버지가 걱정이다.

(11)과 같이 한국수어 동사도 맨 뒤에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주어 정보를 비수지 표지를 통해 명시적으로 동시에 표현한다. 아울러 어디에 가는지 하는 정보는 앞에 공간 설정된 학교와 병원 공간(a와b)를 이용해 학교에 가는지, 학교에서 병원을 가는지 동사에 함께 담아 동시에 표현한다.

(12)의 경우처럼 한국어와 달리, [입원하다] 수어 동사가 주어 가까이 위치하고, 왜 입원하였는지 정보는 뒤에 제시하여 한국어(어머니가 ~~~ 입원하다)와 달리 한국수어 (나 어머니 병원 입원하다)는 주어와 동사간의 거리가 가깝게 제시되어 주어-동사 간의 호응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13)의 예들은 각 주어(아버지와 어머니)에 해당하는 동사 [피곤하다]와 [걱정하다]가 다양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수어의 동사가 일치동사의 경우 시작

야할 것이다.

- (17) a. 시선->1 배우다 시선->1 원하다 [한국어] 나는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
 b. 시선->1 배우다 시선->2 원하다 [한국어] 너는 내가 일본어를 배우기 원한다.
 c. 시선->2 배우다 시선->1 원하다 [한국어] 나는 네가 일본어를 배우기 원한다.
 d. 시선->2 배우다 시선->2 원하다 [한국어] 너는 일본어를 배우기 원한다.
 e. 시선->1 원하다 시선->2 배우다 [한국어] 나는 네가 일본어를 배우기 원한다.



- (18) [한문과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
 【주+ 목적어(명사구)+ 서술어(동사구=동사+ 보조동사)】

(17) a와 같은 한국수어 문장은 한국어로 ‘나는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와 같이 번역을 하기 때문에, (18)에서와 같이 [원하다] 동사를 수지 한국어에서 희망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로 사용하듯이 한국수어에서도 한국어처럼 원하다 수화가 보조동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7) b-d에서 보듯이 비수지 표지(시선)를 통해 [원하다] 동사의 주체를 달리 표현함으로 다양한 의미의 문장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17)의 e와 같이 [원하다] 동사를 앞에 먼저 이야기하는 수어 문장도 가능하다.

한국어의 보조동사는 다른 동사(본동사) 뒤에 쓰여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지만, 문장의 구조나 문장성분의 구실과 수 등을 결정하는 것은 본동사이다. (17)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수어 [원하다] 동사는 앞의 동사와는 다른 행위 주체를 표시할 수 있고, 위치도 다른 동사 뒤에서만 사용되지도 않는다. 한국수어에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한국어나 수지 한국어(문장 18)에서처럼 보조 동사를 통해 표현되기보다는 겹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한국어 사용자가 한국수어를 배우기 어려운 이유

다음과 같이 수어 단어가 선형적으로 표현된 경우, 수지 한국어 사용자¹²⁾와 한국수어 사용자는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① [수어 문장] 나 조용하다 도서관 읽다

[SK 사용자] 나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

[KSL 사용자] 나는 조용하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나는 조용히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

② [수어 문장] 나 도서관 조용하다 읽다

[SK 사용자] 나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다

[KSL 사용자] 나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

③ 나 도서관 읽다 조용하다

④ 나 도서관 읽다 조용하다 읽다

⑤ 나 도서관 조용하다 읽다 조용하다

[SK 사용자] 나는 도서관에서 읽는다, 조용하다 (읽지).

[KSL 사용자] 나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다.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은 한국수어에 관형형 어미(은, 는, -ㄴ)에 해당하는 형태소나 수어 표현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어 관성(꾸미는 말은 꾸미를 받는 말 앞에 오거나 한정하는 말은 한정 받는 말 앞에 온다)에 따라 [조용하다] 수어 단어가 뒤에 오는 [도서관] 수어 단어와 [읽다] 수어 단어를 한정한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¹³⁾.

더욱이 한국수어 문장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단어의 나열 순서로 의미가 결정되지 않는다. 한국수어 문장은 보통 공간을 활용하고, 여러 정보들이 동시에 비수지표지를 통해 표현된다. 즉, 한국수어는 보통 단어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손에 담긴 정보), 비수지표지(Non-manual Marking)가 동시에 의미 정보와 문법 정보를 전달한다.

12) SK(수지 한국어, 한국어대응수화, 한국어식 수화, 청인식 수화, 문장식 수화 등)와 같은 한국어 사용자는 보통 한국어 관성으로 한국수어를 보더라도 수어 단어만 보고 비수지표지(Non-Manual Marking, 비수지 음운 또는 비수지 형태소 등)를 못보고, 공간 활용도 못본다.

13)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은 수화 통역을 할 때도, 아름다움, 아름다운, 아름답게, 아름답다 한국어 단어에 해당하는 수어 단어는 모두 [아름답다] 수어 단어를 사용한다.

볼 부풀리기

t 시선->1

⑥ 나 도서관a 조용하다 읽다a

[SK 사용자] 나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다

[KSL 사용자] 나는 도서관에서 진짜 조용히(또는 일부러 노력하여 조용히, 또는 힘들게 조용히) 책을 읽는다.

t 시선->∅

⑦ 나 도서관a 조용하다 읽다a

[SK 사용자] 나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다

[KSL 사용자] 나는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⑧ 나 아버지 회사 사장

[SK 사용자] 내 아버지는 회사 사장이다.

[KSL 사용자] 뭐지? ... 뭐지?

 t

⑨ 나 아버지a 회사 사장a 음식점b 사장b a만나다b

[SK 사용자] 내 아버지는 회사 사장, 음식점 사장? 만나다

[KSL 사용자] 내 아버지는 회사 사장인데, 음식점 사장을 만나고 있다.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는 단순한 단어의 선형 나열로 의미와 문법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한국어와 달리 조사와 어미가 없다.

의미 정보와 문법 정보는 대부분 비수지 표지를 통해 전달한다. 따라서 비수지표지를 못본다는 것은 한국어에서 자음을 못듣는다는 것과 같다. 즉, 자음 없이 한국어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듯이, 공간 활동과 비수지 표지 등을 통해 동시에 표현되는 다양한 문법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한국수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수어 한국어(SK, Signed Korean, 한국어임, 한국어대응수화, 한국어식 수화, 문장식 수화 등)를 가르치고 배울 때는 문법 교육 없이 단어만 가르치지만(많은 단어를 가르치고, 수어 문장을 연습시키는 경우도 한국어 문장을 제시하고 그 문장 속 한국어 단어마다 수어 단어를 일대일로 대응하도록 가르친다), 한국수어(Sign language)를 가르치고 배울 때는 수어 단어와 함께 동시에 표현되는 비수지 표지와 공간 활용을 포함한 문법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문장과 담화 수준에서 수어를 보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공간 활용과 동시성을 수어 문법으로 사용하는 법을 못배우면, 수어를 보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렵고 대화도 어렵고 통역도

어렵게 된다.

한국은 현재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한국수어를 보존·발전시키고, 보급시키기 위한 기반과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한국수어 혹은 수화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실제로 손을 표현 양식으로 사용하지만, 그 표현과 이해에 있어 다양성(수지 한국어와 한국수어, 피진수화 등)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수어 사용자가 한국어 사용자에 비해 소수이고,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청인 사회 속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됨에 따라 청인들과 의사소통하고, 청인들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 언어사용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 이후, 많은 청인 한국어 사용자들이 수화를 배우고, 사용하고, 통역하면서 한국수어에 대해 충분히 연구되고, 한국수어의 특성이나 문법 등이 연구되고 출판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수어가 교육되고, 보급되고, 통역되면서, 한국수어 단어는 배웠으나 한국수어 문법을 배운 적이 없거나 모르는 한국어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고 한국어 문법에 맞추어 한국수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국수어보다는 한국어와 너무 닮은 수화(유사한국어체계)가 사용되고 보급되었다.

한국은 현재 손을 표현 양식으로 사용하고, 수화 혹은 수어로 불러 지지만,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담겨 있는 정보가 아주 상이한 두 종류의 언어가 존재한다.

수지 한국어는 한국어에서 파생된 언어로, 한국어 기반으로 손을 움직이고, 수화 단어를 한국어 단어처럼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 수어는 한국어와는 독립된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서, 시각 언어답게 시각 요소를 활용하여 정보를 표현하고, 수어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한다.

특히 한국수어는 의미와 문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간을 활용하고, 여러 정보를 수어 단어와 함께 비수지표지 등을 통해 동시에 표현한다. 그래서 한국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手語)는 손의 언어가 아니라, 손도 사용하는 언어다. 한국수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손에 담긴 정보(주로 단어 정보)만을 봐서는 안되며, 공간 정보 및 동시에 표현되는 여러 의미와 문법 정보를 함께 볼 수 있어야 이해가 가능한 언어다. 즉, 한국수어는 다중층위 언어(Multi-tier language)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2007). **한국수화 문형사전**. 서울: 동기관.
-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ldict.korean.go.kr>
- 김철관, 윤병천(2011). **응용언어학개론**. 서울: 양서원.
- 남기현·원성옥·허일 (2010). 한국수화의 동사 유형과 수 표현의 특성. **특수교육 연구**, 17(1), 157-178.
- 남기현·원성옥·허일 (2011). 한국수화 래너티브 속에 나타난 구성된 행위 분석. **언어 연구**, 26(4), 767-789.
- 원성옥 (2013). **수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원성옥·허일·김만영·김유미·남기현·배재만·변강석 (2013). **수화통역의 기초**. 서울: 교우사.
- 이봉원 (2015). **언어치료사를 위한 한국어 문법**. 서울: 학지사.
- 임호빈·홍경표·장숙인 (200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신개정)**.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추진위원회 (2010). **한국수화에 의한 한국어 문법 교육**. 서울: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 허일·김경진 (2013). 한국어와 한국수화의 차이에 따른 수화통역 과정에서의 고려점. **한국복지대학교 논문집**, 223-246.
- Fischer, S. & Gough, B. (1978). Verbs in ASL. **Sign Language Studies**, 18, 17-48.
- Johnston, T. & Schembri, A. (2007).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dden C. A. (1990). The relation between space and grammar in ASL verb morphology. In C. Lucas(Ed.), **Sign language research: Theoretical issues**(pp. 118-132).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Sutton-spence, R. & Woll, B. (1998). **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lli, C. Lucas, C., & Mulrooney, K. J. (2005).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3장 비수지표지

한국수어에서는 손에 담긴 정보뿐만 아니라 비수지표지를 통해 의미 정보와 문법 정보를 전달한다.

한국수어에서 비수지표지(Non-Manual Marking, NMM)는 문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턱을 끌어당기기, 턱을 들기,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기, 눈썹 올리기, 눈썹 내리기, 시선, 눈을 치켜뜨거나 감기, 여러 가지 형태의 입 벌리기, 윗몸의 방향 등 손(手)과 손가락(指) 이외의 동작과 관계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얼굴 표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수어(手話)는 손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손과 손가락 이외의 움직임, 즉 비수지표지(NMM)의 움직임 또한 손의 움직임만큼이나 의미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수어에서 나타나는 비수지표지의 역할에는 1) 감정표현(reflections of emotional states) 2) 구성된 행동(constructed action) 3) 대화 규제(conversation regulators) 4) 기능어(문법표지 grammatical markers) 5) 형태소(lexical) 6) 수식어(modifiers such as adverbs) 등이 있다.

1. 감정 표현(reflections of emotional states)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내게 된다. 농인도 청인과 감정표현에 있어서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화자의 감정상태가 어떠한지를 비수지표지(NMM)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자. 비가 온다는 것 자체가 기쁘거나 슬픈 일은 아닐 것이다. 화자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슬프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만약 화자가 비수지표지로 울상을 지으면서 [비]++라고 했다면 언어적 표현은 ‘비가 온다’라고 하면서 비가 오는 것이 화자에게는 좋지 않은 일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비수지표지로 웃음을 지으면서 [비]++라고 했다면 비가 오는 것이 화자에게 아주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비수지표지는 화자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예문 1) 비가 온다. ----- [비]++

2. 구성된 행동(constructed action)

시각언어인 수어에서는 혼자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이 되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 역할전환(role shift)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대상과 화자를 동시에 나타낼 경우가 있다. 이것을 구성된 행동(constructed action)이라고 하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시각언어인 수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농인의 경우 자유자재로 아주 능숙하게 구성된 행동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자료화면 참조). 수어통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농인들의 유창한 표현들을 많이 보아야 하며 그것을 따라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3. 대화 규제(conversation regulators)

대화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대화에도 기본적인 규칙이 있다고 한다. 대화도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어가며, 어떻게 끝맺는가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농인들이 사용하는 시각언어인 수어에서는 이러한 대화할 때의 기본 규칙들을 비수지표지를 통해 주고 받는다. 수어자 간에 시선 접촉(eye contact)을 통해서 누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어도 괜찮은지 아닌지,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다음은 누가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서 비수지표지가 대화에서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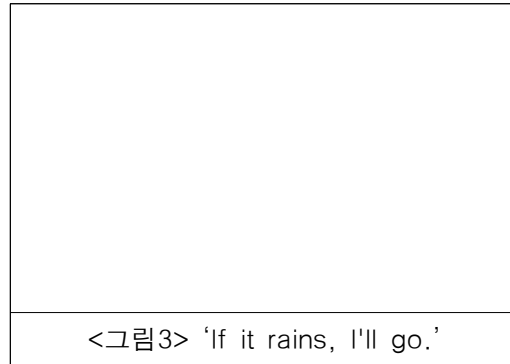
4. 기능어(문법표지 grammatical markers)의 역할

영어와 같은 음성언어에서는 강세(stress)와 박자도 억양(intonation)에 포함된다. 억양은 문장에 얹히는 높이 곡선을 말한다. 문장에서 나타나는 억양은 다양한 감정(예를 들면 놀라움, 분노, 신중함)을 전달한다. 영어를 비롯하여 많은 음성언어에서는 억양이 한 유형의 어구나 문장을 다른 유형의 어구나 문장과 구별해주는 문법적 기능을 맡는다. 따라서 중간 높이로 시작하여 낮은 높이로 끝나는 하강 억양의 "Your name is John."이라는 문장은 단순한 서술인 데 반하여, 마지막 소리가 높은 성조로 끝나는 상승 억양의 "Your name is John?"이라는 문장은 의문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음성언어에서 억양이 평서문과 의문문을 구별해주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처럼 한국수어에서 문장의 유형을 구별해주는 기능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수지표지의 다양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그림2>를 보면 미국수어에서 '화제화(topic)'할 때와 '의문문'을 구사할 때 비수지표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3>에서는 미국수어에서 '조건문'을 구사할 때 비수지표지가 어떻게 실현

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한국수어에서 비수지표지가 문법표지로 사용된 예(의문문, 조건문, 부정문)를 나타낸 것이다.

① 의문문 : 눈썹이 올라가고,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에게 시선을 맞춘다. _____q로 표시함.

(예문2) 집에 가니? ----->> [집][가다]^q

(예문3) 집에 간다. ----->> [집][가다][.]

② 조건문 : 시선을 아래로 하고, 눈썹이 올라가고, 턱을 당기며 고개를 끄덕하는 것.

(예문4) 돈을 주면 책을 준다. --> 2[돈+ 주다]₁ [nmm], [책] 1[주다]₂

③ 부정문 : 머리를 가로 흔든다. _____neg로 표시함.

(예문5) 아직 읽지 않았다. -->> [읽다][아직]^{neg}

여기서 예를 든 것 외에도 비수지표지의 문법표지의 기능은 더 많이 있다. 가령 열거를 할 때, 관계절을 표시할 때에 비수지표지가 사용된다. 아직까지는 한국수어에서 비수지표지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많은 사례를 들지 못하는 점이 못내 아쉽다. 이에 대한 아쉬움은 추후에 후속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음운의 역할

한국수어에서 비수지표지가 단어를 형성하는 음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문-6) [귀엽다] ----- [아깝다]

(예문-7) [청인] ----- [맵다]

(예문-8) [소금] ----- [철저하다]

(예문-9) [어지럽다] ----- [놀랍다]

(예문-10) [생각] ----- [왜]

6. 수식어(modifiers such as adverbs)의 역할

부사어는 문장에서 주로 용언(동사, 형용사)을 한정하며 관형사·부사·문장 전체를 한정하는 말을 뜻한다. 한국어에서는 ‘배가 몹시 아프다’, ‘꽃이 아주 예쁘다’와 같이 ‘몹시’, ‘아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예쁜지를 나타낸다.



<그림4> 수식어로서 비수지표지



<그림5> 수식어로서 비수지표지

이에 반하여 수어에서는 비수지표지가 부사어처럼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그림4>와 <그림5>를 보면 미국수어에서 비수지표지가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는 운전자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조심성 없게 운전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과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글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하여 <그림5>는 통상적으로 운전을 하거나 글을 쓸 때의 비수지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미국수어에서는 TH, MM 이외에도 CS, Puffed Cheek, Intense, Pursued Lips, STA, CHA, IS, BRRR, SOA 등이 수식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수식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어의 모든 어휘와 함께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정 어휘에 한정하여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수어에서도 비수지표지가 부사어처럼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문11) 배가 몹시 아프다. ---->> [배][아프다][n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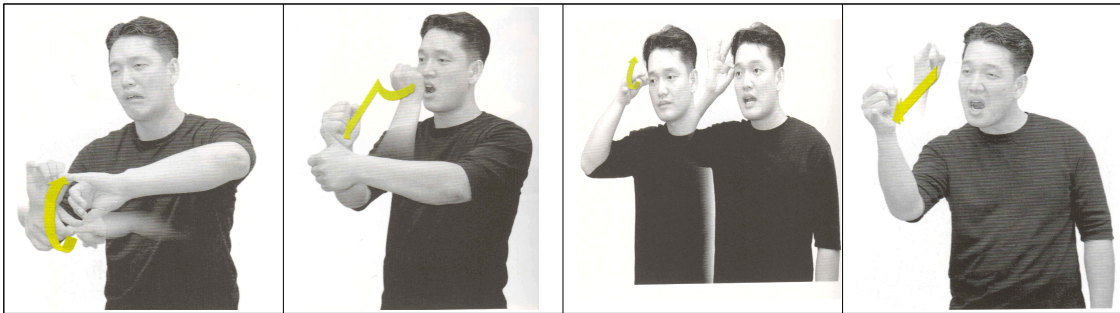
(예문12) 꽃이 아주 예쁘다. ---->> [꽃][예쁘다][nmm]

이 외에도 한국수어에서 나타나는 비수지표지의 양상은 훨씬 다양하다. 미국수어에서는 ‘입 움직임(mouth movement)’이라고 하여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수어에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입모양의 다양한 형태들이 사용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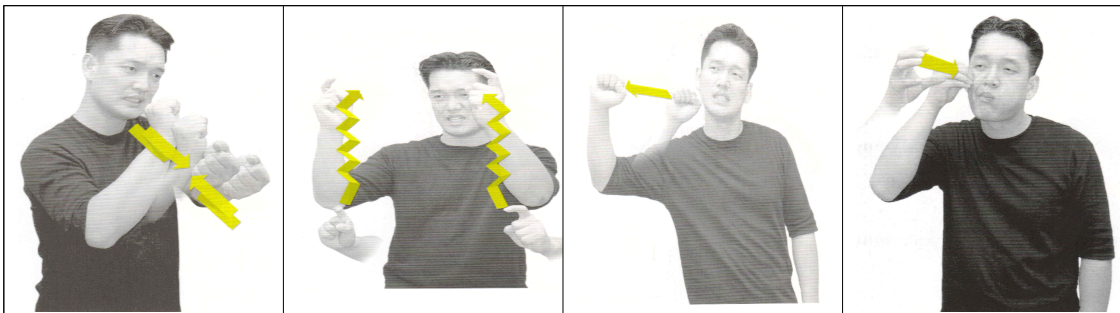
음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그림6>, <그림7>, <그림8> 참조).



<그림6> 다양한 비수지표지(입의 움직임)



<그림7> 다양한 비수지표지(입의 움직임)



<그림8> 다양한 비수지표지(입의 움직임)

지금까지 한국수어에서 비수지표지(NMM)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한국수어에서 얼굴 표정은 비수지표지(NMM)로서 감정 표현하지만, 그 외에도 수식어, 대화에서 규제의 역할, 시각언어로서 중요한 문법표지 역할들을 한다.

한국수어는 시각언어로서 음성언어인 한국어와는 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과는 달리 독자적인 문법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비수지표지(NMM)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도 문장의 개시와 종결, 문장 유형을 구별하게 하는 문법표지로서의 역할은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 연구를 토대로 수어교재에서 기초부터 충실하게 비수지표지(NMM)를 제대로 이해하고 표

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어통역사도 이와 같은 바탕에서 길러져야만 농인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인들이 만족하고 농인들이 기대하는 수어 통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국수어에서 비수지표지(NMM)가 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잘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수어통역의 질적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우룡·장소원(2004).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론. 나남출판.
- 김철관(1999). 한국수화지도의 이론과 실제. 인천성동학교.
- 장진권(2004). 한국수화여행, 한국농아인협회.
- 정유미(2007). 인사를 통한 얼굴 표정과 심리의 연관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조두환 역(1994). 사람의 얼굴. 책세상.
- 최광선(1999). 몸짓을 읽으면 사람이 재미있다. 일빛.
- Baker, C., & D. Cokely(1980). American Sign Language: A teacher's resource text on grammar and culture. Washington, D.C.:Gallaudet University.
- Bridges, B. & Metzger, M.(1996). DEAF TEND YOUR: Non-Manual Signals in American Sign Language. Silver Spring, MD: Calliope Press.

4장 도상성

도상성(Iconicity)은 어떤 개념(의미)과 대응하는 단어(word)나 수어 어휘(sign) 간의 형성된 유사성 또는 유비를 말한다. 음성 언어에서 도상성의 전형적인 예는 의성어(onomatopoeia)이다. 의성어는 해당 단어가 묘사하는 소리를 음성학적으로 흉내 낸다. 의성어는 언어마다 다를 수 있다. 시계 소리는 영어에서는 tick tock 이라고 표현하고, 독일어에서는 tick tack 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어에서는 똑딱이라고 표현한다. 음성 언어에서는 소리를 흉내 낸 단어가 드물지만, 많은 수어에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시각적 이미지를 그 도상성에서 출발하여 모방한 수어 어휘들(signs)들이 많다. 그러나 의성어처럼, 이들 수어 어휘들은 도상성에 근거하고 있지만, **도상성이** 도상적인 수어 어휘(iconic sign)의 형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수어, 덴마크수어, 미국수어 모두 ‘나무’ 개념에 해당하는 도상적인 수어 어휘가 존재하지만, 각 나라 ‘나무’ 수어 어휘는 서로 다르다(Klima/Bellugi 1979).

또한 도상성의 정도는 **점층적**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어 어휘 ‘수영하다’는 도상성에서 출발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수어 ‘파리’ 어휘는 그 도상성이 분명하지 않다. 이 수어 어휘를 보는 사람은 양손이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나타낸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림 1 수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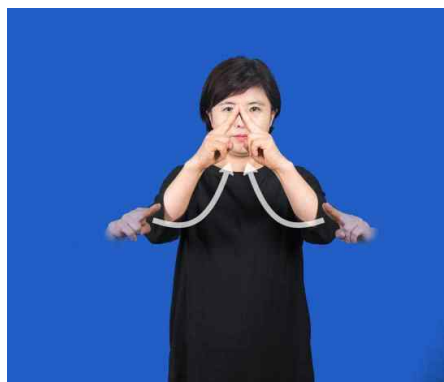


그림 2 파리

예를 들어 독일수어 AEGYPTEN(이집트) 수어에서는 수어 사용자의 손들은 가슴 앞에서 움직이며 미라를 나타낸다. 독일수어 이집트 어휘가 도상성에 기반하고 있다(도상성에 자극 받음)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집트의 역사 속 장례 문화에 익숙해야만 한다(Papaspyrou et al., 2008).

수어에서 도상성은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이미지 형성 기법(image-producing techniques)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독일수어 연구소에서 수어의 도상성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이다(Langer, 2005). 이미지 형성 기법은 도상적인 수어 어휘의 기저 이미지(underlying image)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들 기법은 손과 움직임의 도상적 기능을

수어 형태(sign form)로 표현되는 이미지의 구성 요소들로서 명확히 하는데 중요하다 (Koenig & Konrad & Langer 2008). 이미지 형성 기법들에는 5가지 구분되는 기법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분류한 주요 기준은 손 모양과 움직임의 기능이다. 이미지 형성 기법은 생산적인 수어(productive signs) 뿐만 아니라 상투적인 수어 어휘(conventional signs)에도 적용할 수 있다.

1. 대체 기법(Substitutive technique)

대체 기법에서는 손이 지시 대상 혹은 대상 물체의 주요 부분을 상징한다. 수어 공간 내의 수위, 수향, 수동은 대상 물체의 공간적 위치, 방향, 움직임과 상응한다.

한국수어 중 대체 기법으로 도상성을 표현하는 예는 ‘걸어가다’와 ‘시간’ 수어 어휘가 있다.



그림 3 걸어가다



그림 4 시간

‘걸어가다’ 수어 어휘에서는 손가락이 사람의 다리를 표현한다. ‘시간’ 수어 어휘에서는 우세 손의 검지가 시계 바늘을 나타낸다. 손의 움직임이 대체하는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걸어가다’ 수어에서 손가락을 빨리 움직이면 사람의 다리가 빨리 움직인다는 뜻이다. ‘시간’ 수어에서 우세 손을 천천히 움직인다면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인다는 뜻이다.

2. 손이용 기법(Manipulative technique)

손이용 기법에서는 수어 사용자의 손이 만지고 잡고 혹은 대상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손이 칼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던가 손으로 부채질을 하는 행위를 표현한다. 또한 손이 특정 위치에 가만히 있는 모습도 이 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한국수어에서 손이용 기법으로 도상성을 표현하는 예는 ‘사진기’와 ‘운동’ 수어 예가 있다.



그림 5 사진기



그림 6 운동

‘사진기’ 수어 어휘에서는 두 손이 실제로 사진기를 들고 사진 찍을 때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손의 움직임은 사진기의 움직임이 아닌 사진기를 들고 있는 손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운동’ 수어 어휘에서는 들고 내리는 팔이 실제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3. 스케치 기법(Sketching technique)

손이 연필 혹은 붓 같은 스케치 도구이며 수동을 통해서 사물의 모양을 그리는 기법이다. 수동은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의 움직임이 아니다. 수어 사용자의 손 움직임은 움직임이 없는 사물을 그리는 것이다. 사물의 모양을 수화공간에 선으로 표현한다.

스케치 기법으로 도상성을 표현하는 예는 ‘네모’와 ‘삼촌’ 수어 어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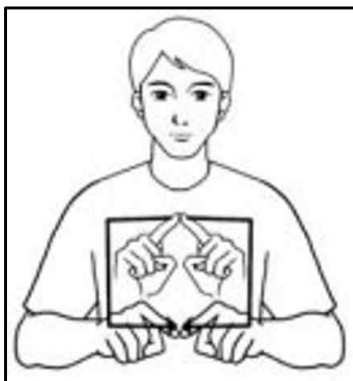


그림 7 네모



그림 8 삼촌

네모 수어에서는 두 손의 검지 손가락이 네모의 모양을 스케치한다. 또한 삼촌에서는 비우세손은 한자의 한 부분을 대체기법으로 표현하고 우세손은 한자를 붓으로 그리듯이 보여준다.

4. 측정 기법(Measuring technique)

손이나 손가락이 사물의 크기나 길이를 표현한다. 손이나 손가락이 지시대상의 크기와 그 경계선 및 테두리를 보여 준다. 측정 기법의 수형은 대부분 무표 수형(unmarked handshapes)으로 표현된다(예: 펼친 수형, 검지 수형).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의 모양을 보여주지 않고 그 사물의 크기나 길이를 나타낸다.

한국수어에서 도상성을 측정 기법으로 표현하는 예는 ‘두껍다’와 ‘어른’ 수어어휘가 있다.



그림 9 두껍다



그림 10 어른

‘두껍다’ 수어 어휘에서는 엄지와 검지로 어떤 사물의 두께를 표현한다. ‘어른’ 수어 어휘에서는 어른의 키가 크다는 것을 측정 기법으로 보여 준다.

5. 지시 기법(Indexing technique)

검지 손가락이나 손은 상대방의 주의를 실제 혹은 가상의 대상이나 공간 내 대상 물체의 위치로 이끄는 화살표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 기법은 대상 물체를 가리키거나 접촉하거나 또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혼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무표 수형 중 지시 수형으로 사용되는 수형은 몇 개 안 된다(예: 검지 수형, 펼친 수형).

한국수어에서 도상성을 지시 기법으로 표현한 수어는 ‘팔’과 ‘코’ 수어 어휘가 있다.



그림 11 팔



그림 12 코

‘팔’ 수어 어휘는 수어 사용자가 펼친 수형으로 팔을 가르치고, ‘코’ 수어 어휘는 검지로 코를 가르친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양손을 이용해 서로 다른 기법을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수어 ‘강도’ 어휘는 비우세 손은 대체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얼굴을 덮은 마스크), 우세 손은 손이용 기법을 사용하여 강도의 손을 나타낸다(그림 13). 또한 한국수어 ‘아부’ 수어 어휘에서도 두 가지 기법이 결합 사용되는데, 비우세 손은 대체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표현하고, 우세 손은 손이용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손을 조아리고 아부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그림 13 강도



그림 14 아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생산적 수어 어휘(productive signs)에서는 사물과 상황, 행위를 묘사한다. 수어 사용자는 위에서 기술한 기법들을 사용해 기저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이미지 형성 기법들을 아는 것은 생산적 수어 어휘들을 적절하게 산출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산적 수어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기저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기법들의 맥락과 어떤 기법인지 확인하는 것은 생산적 수어 표현의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Koenig, Konrad & Langer, 2008).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지 형성 기법들은 많은 상투적인 수어 어휘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수어 어휘에도 적용된다. 상투적인 수어 어휘들의 경우, 일부 수어 언어학자들은 도상성은

수어 습득과 정보 처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Klima & Bellugi, 1980). 이러한 예 중 하나는 우유(milk)인데, 손이용 기법을 통해 손은 소젖을 어떻게 짜는지 보여준다. 우유와 젖소간의 관계를 모르는 아동은 우유 수어 어휘가 도상적으로 어떻게 유도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언어학자들은 농아동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 사물들과 행위들과 도상적으로 관련된 수어 어휘들이 충분히 많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도상성은 상투적인 수어 어휘들(conventional signs)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 Klima, E., & Bellugi, U. (1980). **The signs of language**(3rd reprint, original 1979). Cambridge, Mass.: Harvard UP.
- Koenig, S., Konrad, R., & Langer, G. (2008). What's in a Sign? Theoretical Lessons from Practical Sign Language Lexicography. In Quer, Josep(Ed.), **Signs of the time**(pp.379-404). Selected papers from TISLR 2004. Hamburg: Signum.
- Langer, G. (2005). Bilderzeugungstechniken in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Das Zeichen**, 70, 254-270.
- Mandel, M. (1977). Iconic devices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L. Friedman(Ed.), **On the other hand: New perspectives on American Sign Language**(pp.57-107). New York: Academic Press.
- Papaspyrou, C., Meyenn, A., Matthaei, M., & Herrmann, B. (2008).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 Hamburg, Signum.

5장 수어소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언어는 다른 의사소통 도구와 달리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다고 하는 보편적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어에서 기본 단위인 문장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단어들은 더 작은 단위인 소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언어 체계 내에서 기능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음소라 한다. 즉, 음성언어에서는 의미의 차이를 초래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음소라 하고 이와 관련된 언어학의 하위 분야를 음운론이라 한다. 수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미의 차이를 가져 오는 시각적 변별 요소가 있는데, 이를 수어에서의 음소 즉, 수어소라고 한다.

한국수어에서 음운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김승국(1983)은 한국수어에서 의미를 차이를 가져 오는 가장 구성요소를 수화소라 하고, 수형소, 수위소, 수동소, 수향소, 체동소로 나누었으며, 석동일(1989)은 수어의 시각적 변별 요소 단위를 수화소라 칭하고 수형, 수위, 수향, 수동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또한 김철관(2010)은 음운(음소)라 칭하고, 손 모양, 위치, 운동의 방향(장향), 비수지 신호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본 장에서는 수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요소인 수형(손의 모양), 수위(손의 위치), 수동(손의 움직임), 수향(손 또는 손바닥의 방향), 그리고 비수지 기호(손 이외의 안면표정 등과 같은 표지)와 한국 수어에서 한 요소가 달라지므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 쌍인 최소대립쌍을 통해 한국수어의 수어소를 살펴보고, 수어에서의 음운 구조의 특성을 알아본다.

1. 수형

1) 한국수어의 수형소

처음으로 미국수어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스토키(Stokoe, 1960)는 수어를 이루는 구성요소에서 의미있는 움직임을 하는 손의 결합 구도를 데즈(Dez:designator)라 하고, 미국수어의 데즈(Dez)는 19개가 있다고 하였다. 김승국(1989)은 의미있는 위치에서 의미있는 운동을 하는 한 손 또는 두 손의 결합을 수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수어에서는 Stokoe(1960)가 분석한 19개 외에 10개의 수형소를 더 분리해 내어 29개의 수형소가 있다고 하였다. 석동일(1989)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동작을 하는 두 손의 형태를 수형이라 정의하고 수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수형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처음 수형과 마지막 수형에 한하여 분석한 결과, 21개의 표준 수형소가 있고 다시 각 수형을 세분하여 나눔으로 44개의 수형소가 있다고 하였다. 그림1은 석동일(1989)이 분석한 한국수어의 수형소이다.

/A/					/B/				
[A]	[A1]	[A2]	[A3]	[A4]	[B1]	[B1]	[B2]	[B3]	
/C/				/D/	/E/	/F/	/G/		
[C]	[C1]	[C2]	[C3]	[D]	[E]	[F]	[G]	[G1]	
/H/		/I/		/K/		/L/			
[H]	[H1]	[H2]	[I]	[I1]	[K]	[K1]	[K2]	[L]	[L1]
/M/			/O/	/P/		/R/	/S/		
[M]	[M1]	[M2]	[O]	[P]	[P1]	[R]	[S]	[S1]	
/T/		/W/		/X/		/Y/	/Z/		
[T]	[T1]	[W]	[W1]	[X]	[X1]	[Y]	[Z]		

<그림1> 한국수어 수형소(출처: 석동일(1989) 한국수어의 언어학적 연구)

김칠관(1998)은 한국수어에서 52개의 수형소를 분리해 냈다. 이 중 한글 지문자형이 11가지, 지화법과 알파벳 형 6가지, 숫자 형 20가지, 그 밖의 것 15가지로 구분하였다. 김칠관(1998)이 분석한 한국수어의 수형소는 그림2에 있다.

1 또는 ㅏ 형	2 형	3 형	4 형	5 형	C 형
ㅎ 형	ㄱ 형	ㅋ 형	0 형	여우 형	ㅂ 형
D 형	ㅍ(ㅍ) 형	사내 형	우두머리 형	언덕 형	0 형
Y 형	x 형	L 형	口 형	학다리 형	13 형
14 형	ㅋ 또는 17 형	18 형	19 형	70 형	80 형
90 형	ㅍ리 형	김계 형	김김계 형	ㅍ리 형	ㅈ 형
산(山) 형	ㅍ리 형	세비 형	주먹 형	김계 형	김김계 형
ㅍ리 형	ㅈ 형	산(山) 형	ㅍ리 형	세비 형	주먹 형
지정 형	M 형	ㅍ(ㅍ) 형	김 ㄴ 형		

<그림 2> 한국수어 수형소(출처: 김칠관(1998) 한국수어 어원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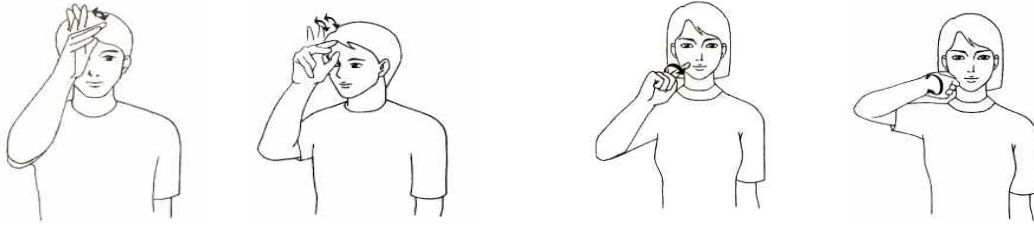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이 수형소는 손가락의 접음과 펴(주먹잡과 펴), 편 손가락(즉 선택한 손가락)의 구부림 유무, 편 손가락들 사이의 접촉 유무, 그리고 엄지를 제외한 편 손가락들 사이의 벌림과 붙임에 의해 그 변별자질이 나누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석동일(1989)의 수형소 분석에서 보면, /B/ 수형은 5손가락을 모두 펴서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B1]과 [B2] 수형은 변별자질이 손가락의 벌림이며, [B2]와 [B3] 수형은 변별자질이 손가락의 구부림이고, [B3]와 [B4] 수형은 변별자질이 손가락의 접촉이다.

미국수어와 한국수어의 수형소를 비교해 보면, 미국수어에서는 주먹을 쥐 수형인 A 수형 하나이지만, 한국수어에서는 3사람 모두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A수형에서 엄지의 모양이 변별자질이 된다고 하였다. 석동일은 /A/ 수형을 5가지로 세분하였으며, 김칠관은 ㅎ형, 억형, 주먹형, M형 등 4가지로 보았다. 이것은 음성언어에서 [p]와 [b]가 한국어에서는 음성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음소는 아닌 반면에 영어에서는 의미가 차이를 가져오는 음소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 즉 /A/의 다양한 형태가 미국수어에서는 음성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음운적이지는 않으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나, 한국수어에서는 /A/수형의 다양한 형태가 사용되는 수어 어휘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수형소로 존재한다.

2) 수형에서 의미에서 차이를 가져 오는 최소대립쌍

음성언어에서는 최소대립쌍이라고 불리는 단어 쌍이 있어서 음운론의 기본 구성 요소들을 분리해서 기술해 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어에서도 이러한 최소대립쌍을 통해 수어소를 분리해 낼 수 있다. 즉 최소대립쌍의 예로는 'pat'와 'bat'을 들 수 있다. 이 두 단어는 연속해서 나는 세 개의 소리 중 하나의 소리만이 달라지므로 그 의미가 달라진다. 게다가 서로 대비되는 두 음 'p'와 'b'는 조음 자질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측면에서만 차이가 있다. 즉, 'b'는 발음을 할 때 성대의 떨림이 있는 유성음이고, 반면에 'p'는 성대의 떨림이 없는 무성음이다. 이렇게 'p'와 'b' 하나의 소리가 달라지므로 의미가 달라지므로 영어에서는 'p'와 'b'는 음소로 영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

한국수어에서도 이러한 최소대립쌍을 통해 수어소를 분리해 낼 수 있다. 수위와 수향이 같으며 수형에서만 달라 그 의미가 바뀌는 수어는 [닭]과 [경찰], [예쁘다]와 [어렵다] 등이 있다(그림3). [닭]과 [경찰]은 수위가 이마, 수동은 손가락 각자 운동(손가락 흔들기), 수향은 손바닥이 왼쪽으로 동일하다. 단지 수형이 엄지와 검지와 장지만을 편 수형(석동일의 [P1]수형, 김칠관의 ㄸ형)이나 다섯 손가락 모두 편 수형(석동일의 [B1]수형, 김칠관의 5형)이나에 따라 그 의미가 [경찰]에서 [닭]으로 달라진다. [예쁘다]와 [어렵다]도 수위가 오른쪽 볼, 수동은 손목을 안쪽으로 비트는 동작, 수향은 비스듬한 바깥쪽으로 동일하다. 단지 수형에서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진다. 즉 [예쁘다]는 엄지만 접고 나머지 손가락은 편 수형(석동일의 [G1]수형, 김칠관의 1형)이고, [어렵다]는 주먹쥐 수형(석동일의 [A1]수형, 김칠관의 주먹형)이다.



<그림 3> [닭]

[경찰]

[예쁘다]

[어렵다]

2. 수위

1) 한국수어의 수위소

스토키는 수어를 이루는 구성요소에서 수어가 이루어지는 위치를 탭 (Tab:tabulator)라 하고, 미국수어의 탭(Tab)은 12개가 있다고 하였다. 김승국(1989)은 수형이 의미있는 운동을 하는 위치라 하고 한국수어에서는 23개의 수위소가 있다고 하였다. Stokoe(1960)가 분석한 12개 외에 11개의 수위소를 더 분리해 내어 23개의 수위소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스토키는 어깨와 엉덩이 사이의 몸통을 하나로 본 것에 비해 김승국은 어깨, 척추, 가슴, 배 옆구리와 허리를 세분화하였고, 몸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수어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중요 신체 부위를 수위소로 다 세분화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석동일(1989)은 김승국이 넣지 않은 공간과 양손 수어에서 나타나는 손을 수위소로 넣고 20개의 수위소를 분리해 내었다. 또한 김승국이 눈과 눈썹 그리고 목을 앞과 뒤로 분리한 것과 달리 석동일은 눈은 하나로 묶고 목을 앞과 옆으로 나누었으며, 머리, 코, 입, 어깨, 이마, 뺨 등을 세분화하여 20개의 이형을 제시하였다. 즉, 입의 경우도 [빨강]이라는 수어는 입술이 수위가 되며, [흰색]이라는 수어는 이가 수위가 된다. 따라서 한국수어의 경우는 입술과 이가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수위소로 존재한다.

2) 수위에서 의미에서 차이를 가져 오는 최소대립쌍

한국수어에서 다른 세 가지 수어소는 같으나 수위가 달라지므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의 쌍은 [만들다]와 [하다]그리고 [수고]가 있다. 즉 그림4와 같이 [하다]와 [수고]라는 양 손을 주먹을 쥐 수형에서 오른손(우세손)이 왼손(비우세손)의 손목을 두드리느냐, 하박을 두드리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한국수어에서는 미국수어와는 달리 손, 손목, 하박이 수위소가 된다.



<그림 4> [만들다]



[하다]



[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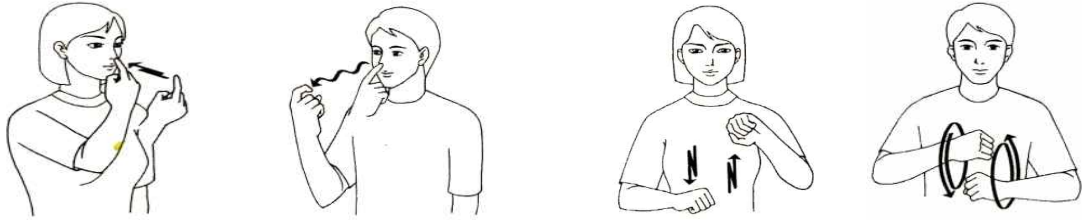
3. 수동

1) 한국수어의 수동소

김승국(1983)은 수어에서의 운동 성분 즉 수형의 운동을 수동이라 하였는데, 스토키는 이를씨그(Sig: signature)라 하였다. 스토키가 미국수어의 씨그를 24개로 분석한 것에 비해 김승국은 한국수어를 분석하여 36개의 수동소를 밝혀냈다. 김승국은 스토키가 분석한 미국수어의 상, 하, 좌, 우, 내향, 외향 외에 방향을 서북향, 동남향, 서북향 동남향, 서남향, 등 세분화 하였으며, 동작의 속도와 강약도 수동소로 보았다. 또한 석동일(1989)은 수동소를 운동의 방향과 양손의 관계, 동작의 양과 질적 변화로 나누어 49개의 수동소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한국수어의 수동소와 스토키 체계의 큰 차이점은 동작의 양과 질에 해당하는 느린 동작과 빠른 동작, 부드러운 동작과 강한 동작 등을 변별자질로 보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동작의 질적인 부분은 수동소로 보기보다는 수어문장 안에서 부사적인 역할이나 감정의 표현이나 강조 등 통사적 역할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수동에서 의미에서 차이를 가져 오는 최소대립쌍

한국수어에서 다른 세 가지 수어소는 같으나 수동이 달라지므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의 쌍은 [배우다]와 [멋있다], [행동]과 [자유] 등이 있다. 즉 그림5와 같이 [배우다]와 [멋있다]는 검지만 편 수형, 콧등라는 수위, 그리고 몸 쪽으로 향한 수향이 같다. 그러나 [배우다]는 수평의 전 후 방향 운동을 [멋있다]는 손가락 관절 굴곡 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수동에서만 다르다. [행동]과 [자유] 역시 수형, 수위, 수향이 같으나 수직의 상하방향 운동이나, 수직 회전 운동이나 하는 수동에서만 달라지므로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그림 5> [배우다]

[멋있다]

[행동]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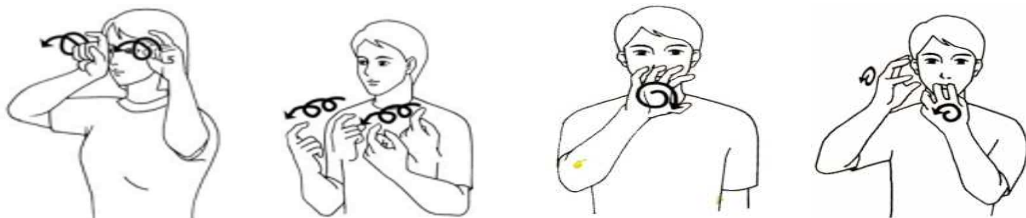
4. 수향

1) 한국수어의 수향소

스토키는 미국수어를 음운적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수형, 수위, 수동의 요소만을 분석했지만 수어는 이 세 가지 요소 외에 수향 즉 손의 방향에 의해 그 의미가 달라지므로 수어에서 음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승국(1983)과 석동일(1989)은 손바닥과 손가락의 방향도 시각적인 변별자질이 된다고 하고 이를 수향소라 하였다. 김승국은 손바닥의 방향 10개와 손가락의 방향 10개를 수향소를 보았다. 그에 비해 석동일은 손가락의 방향도 엄지와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의 방향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표기의 혼란을 우려해 손가락과 손바닥의 방향을 상, 하, 좌, 우, 전, 후, 이렇게 6개씩 보았다. 물론 편 손가락(선택된 손가락)의 방향이 엄지가 달라짐에 따라 신체 구조학상 나머지 손가락의 방향도 달라질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음성학적으로 볼 때 가능한 조음(수향)이므로 독일의 수어 전사 체계인 함노시스는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2) 수향에서 의미에서 차이를 가져 오는 최소대립쌍

그림6에서 보는 것처럼 [여행]과 [양]은 검지를 펴서 구부린 수형, 머리 옆의 수위, 앞 뒤로 움직이는 수평 운동으로 세 요소에서는 동일하지만 양손의 방향이 앞 쪽을 향하고 있느냐, 뒤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연습]과 [청인]이라는 수어도 마찬가지로 수향이 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뀌면서 의미가 달라진다.



<그림6> [양]

[여행]

[연습]

[청인]

5. 비수지 기호

1) 한국수어의 비수지 기호

비수지 기호란 수어에서 손 이외의 얼굴표정, 몸의 움직임 등 음성언어에서의 초분절적인 요소인 높낮이, 강세, 장단에 해당하는 것이다. 비수지 기호 역시 스토키의 분석에는 없는 요소이나, 그 이후 미국수어에서도 엔엠에스(NMS: Non Manually Sign)라 하여 수어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한국수어에서도 석동일은 비수지 기호를 수어소로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승국(1989)은 손 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의 동작까지 취해 보이는 기호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체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수어에는 20개의 체동소가 있다고 하였다. 즉, 손 이외의 얼굴표정과 몸의 움직임 등이 수어에서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별 자질이 된다. 예를 들어 [놀라다]라는 수어를 할 때는 손의 모양과 위치와 동작도 중요하지만 얼굴 표정에서도 놀라는 표정을 지어보아야 하며, [교만]이라는 수어를 할 때도 손과 거만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수지 기호는 정서나 감정을 나타내는 기능 외에도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별자질로서의 기능을 하며 문장 수준에서는 문법 표지로서의 기능도 한다.

2) 비수지 기호에서 의미에서 차이를 가져 오는 최소대립쌍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엽다]와 [아깝다]는 손가락을 다 펴고 붙인 수형, 왼쪽 볼 옆이라는 수위, 두드리는 수동, 비스듬히 오른쪽을 향한 손바닥의 방향에서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귀엽다]는 웃는 얼굴 표정이고 [아깝다]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므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방귀]는 [똥]이라는 수어도 수형, 수위, 수향, 수동에서 모두 같으나 얼굴 표정에서 양 볼을 부풀렸다가 푸하고 부는 비수지 부호가 들어가므로 의미가 달라진다.



<그림 7> [귀엽다]

[아깝다]

[방귀]

[똥]

6. 음소의 배열: 음절 구조

음성언어의 음절이 모음을 중심으로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 등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것과 달리 수어는 수형, 수위, 수동, 수향, 비수지 기호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스토키 체계에서 수어는 동시적인 대비를 통해 최소대립 단어 쌍을 묶으면서 수어소들을 분리해 냈다. 그러나 [예쁘다]라는 수어처럼 하나의 수형, 수위, 수향 수동으로 이루어진 수어도 있지만 모든 수어 단어가 그렇지 않다. 두 개 이상의 수형, 수위, 수향을 갖는 수어 단어가 많다. 예를 들어 [있다]라는 수어는 두 개의 수형을 가지며, [농]이라는 수어는 한 개의 수형으로 이루어져있지만 두 곳의 수위에서 이루어지고, [변덕]이라는 수어 역시 한 수위에서 하나의 수형으로 이루어지지만, 두 개의 수향을 가진다. 또한 [유행]이라는 수어는 한 수위에서 이루어지지만 두 개의 수형과 수향을 가진다. 이렇게 대부분의 수어들은 연달아 일어나는 일련의 수형과 수위와 수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수어의 배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수형:	[있다]	주먹형 -> 5형
	[기억하다]	5형 -> 주먹형
수위:	[농]	귀 -> 입
	[술]	턱 -> 이마
수향:	[되다]	외향 -> 내향
	[변덕]	아래 -> 위

물론 스토키 전사 체계에서도 연속해서 일어나는 두 움직임은 전사의 일부 요소로 포함시킨다. 즉, 스토키 전사 체계에서는 일련의 손모양, 방향, 혹은 위치가 연속해서 일어날 때, 이러한 변화를 움직임을 수동을 기술하는 부분에 표기한다. 예를 들어 UNDERSTAND 라는 수어는 X 와 G 라는 두 가지 손 모양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손 모양은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면서 함께 표기한다. 이와 같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위치의 변화는 X↗X라고 표현한다.

이렇듯 스토키 전사 체계에서 연속해서 일어나는 손 모양, 위치, 방향의 변화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수동(움직임)을 기술하는 부분에 반영된다. 그러나 Valli & Lucas(2000)는 스토키 전사 체계에서는 수어의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음성언어의 구조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수형과 수위 그리고 수향에서의 일련의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그들은 수어는 수어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지만 순차적인 구조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음성언어에서 “ㄱ-ㄴ-ㅇ”이 배열을 달리하여 “ㅇ-ㄴ-ㄱ”이 되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수어에서도 수형이나 수위에서의 순차적 배열의 변화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있다]-[기억하다]라는 수어의 대비를 보면, 두 수어

는 수형과 수위와 장향이 모두 같지만 수형의 변화에 의해 그 의미가 달라진다. 즉 주먹형에서 5형으로 변하느냐, 5형에서 주먹형으로 변하느냐에서만 차이가 있으므로 연속해서 일어나는 수형의 변화가 그 변별자질이 된다. 또한 [귀엽다]와 [낮설다]라는 수어는 수동을 의미 변별자질로 볼 수도 있지만, 손바닥의 방향이 오른쪽-오른쪽인데 반해 [낮설다]는 오른쪽-왼쪽으로 변하므로 수향의 변화를 의미 변별 자질로 볼 수도 있다. 이에 Valli & Lucas(2000)는 이러한 수형이나 수위, 그리고 수향에서의 일련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어를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많은 수어들은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위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처음에는 이 위치에서 그 다음에는 저 위치에서 수어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농]라는 수어는 귀에서 수어가 시작돼서 입에서 수어가 끝난다. 그러나 입에서 시작해서 귀에서 끝나게 수어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가 수어를 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나 지역, 문법 때문에 변이가 일어난 경우의 한 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이가 위치의 순서가 바뀌는 형태로 일어났다는 점이다. 수어가 이루어지는 위치들의 앞뒤 순서와 관계없이 수어의 의미가 똑같다면, 대비의 예는 되지 못하지만, 수어가 이루어지는 위치들의 순서가, 수어의 구조와 이것이 어떻게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토키 전사체계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수어열의 순차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어의 구조를 기술하기 위해 Liddell & Johnson(1989)은 이동-정지(Movement-Hold)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스토키와는 다른 관점에서 수어의 구조를 본다. 즉 수형, 수동, 수위의 수어소가 동시에 구성된다고 보는 수어 언어의 동시성보다는 순차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수어의 구조를 기술하고 있다.

이동-정지(Movement-Hold) 모델에서는 수어가 정지 분절(hold segment)과 움직임 분절(movement segment)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분절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며, 수형과 수위와 수향과 비수지적 신호는 조음자질들(bundle of articulatory feature)로 보았다. 정지(hold)란 조음소들이 일정한 상태로 있는 기간을 말하고, 이동(movement)이란 조음소들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기간을 말한다. 이 때 하나 이상의 매개변수가 동시에 변화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수어의 분절 구조를 그림 8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정지 분절

분절자질
조음자질

2) 움직임분절

분절자질	
1차 조음자질	2차 조음자질

<그림 8> 수어의 분절구조

이동-정지 모델에 의하면 수어단어가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의 6가지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구성형태는 “정지-이동-정지(H M H)”이다. 이것은 어떤 수위에서 시작하여 다른 수위로 이동하여 접촉 또는 정지하는 형태로 [잘하다], [일년] 등이 있다. 이들 수어를 도해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잘하다]의 도해

조음소	분		절
	정지(H)	이동(M)	정지(H)
오른손	수형	자연스럽게 편 손 (B)	자연스럽게 편 손 (B)
	수위	왼쪽 하박의 시작점 (팔꿈치쪽)	왼쪽 하박의 끝점 (손목쪽)
	수향	손바닥 하향	손바닥 하향
왼손	수형	자연스럽게 편 손 (B)	
	수위	중립	
	수향	손바닥 하향	

두 번째 유형은 “이동(M)”으로 움직임 분절(movement segment)로만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끝나지 않는 계속적 동작으로 이루어진 수어이다. 이 형태의 예는 [항상], [행동]과 같은 수어가 있다(그림 9를 보라).



<그림9> [행동]

세 번째 유형은 “접촉(H)”으로 정지 분절(hold segment)로만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어떤 신체부위를 지적해 주는 수어이다. 즉 [눈], [코]와 같은 수어는 그 부위를 지적해 준다

네 번째 유형은 이동-접촉(M-H)로 움직여서 어떤 수위에 접촉시키는 것이다. 이런 수어의 예는 [맞다] 등이 있다(그림 10을 보라). 이 때 손가락의 내적 움직임은 이동(movement)로 보지 않으므로 [색깔]과 같은 수어도 이 유형의 수어로 본다.



<그림> 10 [맞다]

다섯 번째 유형은 이동-접촉-이동-접촉(M H M H)이다. 이것은 움직여서 어떤 수위에 접촉했다가 다른 수위로 이동하여 접촉하는 것으로 [배반하다] 등의 수어가 있다 (그림 11을 보라).



<그림 11> [배반하다]

여섯 번째 유형은 이동-이동-이동-접촉(M M M H)이다. 이 유형은 연속해서 움직임을 두 번 받은 후에 어떤 수위에 접촉하면서 끝나는 것으로 [진찰하다] 등이 있다 (그림 12를 보라).



<그림 12> [진찰하다]

7. 수어의 음운과정(Phonological Processes)

앞 절에서 수어의 구성요소와 그것들이 형성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배열순서가 다양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수어의 구성요소들은 배열 순서가 다르며, 그것들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즉 Liddell & Johnson(1989)의 이동-접촉(Movement-Hold) 모델에 의하면 수어어휘가 구성되면서 음운 수준에서에서 그 배열이 서로 영향을 미쳐 음성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 수어의 음운과정은 움직임의 삽입(epenthesis), 접촉의 삭제(hold deletion), 치환(metathesis), 그리고 동화(assimilation) 등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수어에서도 나타난다. 다음은 네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1) 움직임(movement)의 삽입

수어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은 수어를 이루는 분절(segment)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혹 움직임 분절이 한 수어단어의 마지막 분절과 다음 수어의 첫 분절 사이에 첨가된다. 이러한 움직임 분절의 첨가를 움직임 삽입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눈]이라는 수어는 H로 이루어져 있으며, [빨강다]이라는 수어도 H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 두 수어 단어를 연결하여 '눈이 빨강다'라는 수어를 하고자 할 때는 [눈]의 H와 [빨강다]의 H 사이에 M이 첨가되어 H M H의 구조가 된다.

2) 접촉(hold)의 삭제

움직임 삽입은 접촉의 삭제라는 다른 음운과정과 관련이 있다. 접촉의 삭제는 수어를 연이어서 할 때 움직임 사이의 접촉 동작을 생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팔다]라는 수어는 정지 움직임 정지(H M H)로 이루어져 있고 [-싶다]라는 수어도 정지 움직임 정지(H M H)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두 수어가 연이어 일어날 때는 움직임이 [팔다]의 마지막 분절과 [-싶다]의 첫 분절 사이에 들어간다(움직임 삽입의 예가 됨). 또한 [팔다]의 마지막 정지와 [싶다]의 첫 접촉 생략되어서 정지-움직임-움직임-정지의 구조를 이룬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팔다]				[싶다]		
	H	M	H		H	M	H
움직임 삽입:	H	M	H	M	H	M	H
정지동작 삭제:	H	M		M		M	H

이러한 것은 한국수어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복합어(compound)에 대한 설명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3) 음운도치(metathesis)

한 수어에서 분절들의 위치가 간혹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위치의 변화과정을 음운도치라고 한다. 음운도치 설명하기 위해 [농]이라는 수어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자.

	M	H	M	H
수형	B형	B형	B형	B형
수위	귀	귀	입	입
수향	손등 오른쪽	손등 오른쪽	손등 오른쪽	손등 오른쪽

그러나 처음과 마지막 분절의 수위자질이 다음과 같이 바뀔 수도 있다. 그것이 다음과 같다.

	M	H	M	H
수형	B형	B형	B형	B형
수위	입	입	귀	귀
장향	손등 바깥	손등 바깥	손등 바깥	손등 바깥

이렇게 분절들의 위치 변화를 허용하는 수어는 많다. 그러한 수어의 예는 [증거] [배반] 등이 있다. 그러나 수위자질에서 위치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과장하다] [술]과 같은 수어도 있다.

4) 동화(Assimilation)

동화란 어떤 분절이 그 분절의 가까이, 대부분은 앞이나 뒤에 있는 분절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의 좋은 예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와 같은 수어에서의 손모양이다. 기본 수형은 B형인데, 이것이 연이어 일어날 때는 손모양이 뒤이은 다른 수어의 손 모양과 같게 변화한다. 즉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수어는 원래 [육친]을 나타내는 수어를 할 때는 기본 수형이 B형이었는데, 뒤의 [여자], [남자], [사람]이라는 수어의 수형에 동화되어 앞의 수형이 I형, 우두머리형, Y형으로 바뀌어 역행동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동화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형에서 뿐 아니라 수위에서의 동화도 일어난다. 예를 들어 [내일] [간다]에서는 [간다]라는 수어가 앞의 [내일]이라는 수어의 수위인 어깨 근처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머리] [아프다]에서도 [아프다]가 머리 높이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동화에 관한 것은 복합어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참고문헌

- 金承國(1983), 韓國手話의 心理言語學的 研究. 博士學位請求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 김칠관(1998). 한국수화 어원 연구. 인천성동학교.
- 김칠관(2010). 한국수화언어학입문. 미간행자료.
- 石東一(1989), 韓國手話의 言語學的 分析. 博士學位請求論文, 大邱大學校 大學院.
- 원성옥(2003), 한국 복합수화의 조어특성. 한국수화학회 제5회 학술대회 자료집, 81-93.
- 한국표준수화교범제정 추진위원회(2005). 한국수어사전. 문화관광부·한국농아인협회.
- Liddell, S. & Johnson, R.(1989). American Sign Language: The phonological base. *Sign language studies*, 64, 195-277.
- Stokoe, W. C. Jr.(1960). *Sign Language Structure: an outline of the visual communication systems of the American deaf*. Buffalo: University of Buffalo.
- Valli, C., & Lucas, C.(2000). *Linguistics of American sign language*.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6장 부정

부정은 인간이 언어로써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시작한 이후로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의 애매함으로 인해 언어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부정문은 한국수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수화학습자들이 기초단계에서 반드시 습득하여야 할 기본적인 문법표현으로써, 구조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 정확한 학습체계를 구성하려면 그에 대응하는 한국수어 부정표현의 구체적 연구가 절실하며 그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수어와 한국어는 부정표현에 있어 부정을 나타내는 요소들이 기능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수화학습자들이 한국수어의 부정표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한국어 부정문을 한국수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어를 언어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수어를 ‘또 하나의 언어’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처럼 외국어 문법체계와 언어구조를 익히듯이 한국수어의 문법체계와 언어구조를 알고 그 특징들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국수어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한국수어에는 통사론적, 의미론적으로 한국어와는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다. 특히, 부정표현에서 한국어와는 다른 특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수어의 특징들 중에서 부정표현과 관련한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정과 부정표현

1) 부정의 개념

‘긍정(肯定)’과 ‘부정(否定)’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긍정’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이나 생각이) 참이라고 하든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연세한국어사전)” 또는 “①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 ②(논리) 인정한 판단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주어와 술어와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일(표준국어대사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부정’에 대해서는 “

① 긍정하지 않는 것, ② 존재하는 것 자체나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연세한국어사전)” 또는 “①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않다고 반대함, ②(논리) 일정한 판단에서 주사와 빈사의 양 이념이 일치하지 아니함. 곧 사물이 서로 일정한 관계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표준국어대사전)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긍정’과 ‘부정’의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부정의 개념 규정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부정문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부정’이란 개념이 독자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부정’은 ‘긍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그 정확한 특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박형우, 2004).

‘부정(否定)’이란 단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개념이 아니라 문장 이상의 담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개념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화용론 분야를 제외하면 ‘부정’이란 문장 이상의 단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전적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은 ‘긍정문’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부정’과 ‘부정문’을 규정해야 한다. 긍정문이 존재하지 않는 부정문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결국 ‘부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정문’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장 단위 이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개념이며, 이러한 ‘부정’의 의미를 갖는 것은 당연히 ‘부정문’이 되기 때문이다.

‘부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긍정과 부정을 통해 그 모순(contradiction)과 반대(contrary)를 구별했다. 통상적으로 모순은 가능성의 영역을 전부 소거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모순적인 대당(opposition)의 구성원 중의 하나는 참이 되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 된다. 한편 반대는 중간을 배제하지 않아서 반대의 대당들은 둘 다 참이 될 수는 없지만 둘 중 어느 것이 참이 아닐 수는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에는 모순과 반의를 동일한 위계로 다룬 것이다.

Jespersen(1924)에 따르면, 중간어(middle term)의 허용 여부에 따라 모순어(contradictory)와 반대어(contrary term)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모순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 접두사를 사용하거나 ‘not’를 포함한 합성 표현을 사용하며, 반대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별개의 어근이 사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부정어는 이론적으로 어떤 용어(term)를 모순어로 바꾼다고 보고 있다. 특히 문장에서 부정 서술어가 쓰여 문장이 부정될 때 부정문은 긍정문과 모순을 이룬다고 보았다.

명제논리적인 관점에서 부정을 설명한 Lyons(1977)는 참인 명제의 부정은 거짓 명제가 되고, 역으로 거짓 명제의 부정은 참 명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Kempson(1977)도 부정문은 그에 대응되는 긍정 명제가 거짓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보았다.

Dahl(1979)에서는 부정은 문장 S_1 이 참일 때 S_2 가 거짓인 방식으로, 문장 S_1 을 다른 문장 S_2 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러한 의미의 변화로 부정문의 필요조건을 형식화하고 있다.

Givon(1978)은 명제의 진리치만을 바꾼다는 논리적인 입장에서의 설명이 부정 화행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으로 오도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긍정문과 이에 맞서는 부정문은 진리치만 다른 것이 아니라 화용론적인 요소, 즉 담화 전제도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 서술의 화행(The NEG-declarative speech-act)은 P를 믿거나 P와 같음이나 P와 친밀함을 믿는 것 같은 청자의 배경(background)에 반대하여, P를 부인(deny)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주로 부정의 문제를 단어 차원이나 명제, 문장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검증 과정에서는 논의 단계가 어느 것이든 이러한 단어들을 문장에서 사용하여 부정문 차원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

김동식(1980)은 긍정과 대립되면서 하나의 의미체 전체를 형성하고 긍정과 모순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부정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구종남(1992)은 부정은 의미론적으로는 만일 부정 접사에 의해 부정 작용이 일어난다면 그 접사가 결합하는 어휘를 모순이나 반대로 만드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정이 문장을 부정한다면 그 부정된 문장은 긍정문을 모순 관계로 만드는 의미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부정의 작용에 대해서 명제논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부정은 어떤 문장이 부정될 때는 그 문장의 진리치를 바꾸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담화 기능적 측면에서는 부정은 청자가 P를 믿거나 P와 같음 혹은 P와 친밀함을 믿는 것 같은 청자의 배경(background)에 반대하여 P를 부인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보았다.

박정규(1996)는 부정이란 대당 긍정과 서로 '반의'(antonym)관계에 놓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의 이유가 긍정과 부정이 서로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모순어가 반의어의 하위어로 분류하는 의미에서 '반의'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박형우(2003)에서는 부정이란 의미론적으로는 긍정문과 모순의 관계를 보이는 의미 작용을 뜻하며, 명제 논리적 입장에서는 문장이 진리치를 바꾸는 기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화용론적 측면에서는 청자의 잘못된 믿음을 수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청자의 질문에 대하여 부정 응답을 함으로써 청자의 신정보가 부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기존의 통사론 중심의 부정법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의미론적 개념으로 부정문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부정(否定)'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면, 부정의 의미는 '반의(反意)'나 '모순(矛盾)'이라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의미가 다루는 차원이 명제 단위인가 아니면 화행 수준까지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의견에는 차이가 있으며, '반의'나 '모순'을 같은 위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모순'을 '반의'의 하위 관계로 볼 것인가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반의를 모순보다 상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우, 반의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반의는 일반적으로 '모순(矛盾).대조(對照)'의 관계와 '반대(反對)의 관계'로 나눌 수 있다. '모순.대조'의 관계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정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명제가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관계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반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참이 될 수는 없지만 동시에 거짓이 되는 것은 가능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부정'의 개념 규정은 결국 '모순' 자체만으로 부정의 의미를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모순'의 개념에서 보다 확대하여 '반대의 관계'를 포함한 '반의 관계'를 '부정'의 개념으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부정의 문제를 '모순'으로 한정한다면 '부정'이라는 의미 관계는 대단히 축소되며, '반의 관계'로 규정할 경우에는 '부정' 개념의 폭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넓어진다.

- (1) a. 철수가 학교에 간다.
 b. 철수가 학교에 온다.
 c. 철수가 학교에 안 간다 / 가지 않는다.

(1a)의 ‘간다’에 대해 반의 관계를 가지는 반대어 ‘오다’가 (1b)에서 쓰이고 있다. 그리고 (1c)는 부정소를 넣어 부정문을 형성하였다. 이 경우 (1a)와 (1b)는 어느 한 쪽이 참이 될 경우 다른 한 쪽은 필연적으로 거짓이 된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부정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한 쪽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이에 반하여 (1c)는 (1a)와 어느 한 쪽이 참이면 다른 한 쪽은 반드시 거짓이 되고, 어느 한 쪽이 거짓인 경우에는 다른 한 쪽은 반드시 참이 된다. 그러므로 문장 단위에서 ‘반대 관계’를 포함한 ‘반의 관계’를 모두 부정문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어휘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의 의미는 ‘반의’ 또는 ‘모순’의 의미관계로 정리할 수 있다. ‘모순’은 필연적으로 거짓인 단언을 뜻하는 것으로 한 문장에 대한 부정문과 긍정문은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없는 관계가 된다. 또한 어느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든 모순 관계에서는 단언과 부정에 대한 상호 함의 관계가 성립된다.

2) 부정표현의 정의

부정문과 부정표현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혼동되어 쓰이는 경향이 있다. 다음은 화자(話者)가 자신의 부정적 심리 태도를 표현하는 예문이다.

- (2) a. 철수야, 밥 먹어라.
 b. ① 밥은 먹지 않겠어요.
 ② 안 먹고 싶어요.
 ③ 못 먹겠어요./ 먹지 못하겠어요.
 ④ 이가 아파서 먹기는 불가능해요.
 ⑤ 바빠서 먹을 시간이 없어요.
 ⑥ 싫어요.
 ⑦ 배가 부르네요.

(2a)에 대해 반응하는 (2b)는 다양한데, 이들 반응은 의미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모두 ‘밥을 안 먹는다’의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①~⑦은 ‘밥을 먹는다’의 부정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부정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묶을 수 있다. (2b)의 ①, ②, ③처럼 {아니, 못}과 같은 부정소를 사용하는 경우와 ④, ⑤처럼 부정의 의미가 내포된 어휘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나 ‘없다’, ‘모르다’에 의해 부정표현을 하는 경우, 그리고 ⑥, ⑦처럼 부정소나 부정어휘가 아닌 ‘싫어요’, ‘그만’, ‘글썩요’ 등 발화로써 부정적인 심리태도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상과 같이 (2b) 모두 부정표현이란 개념 안에 속하며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한다. 그러나 (2b)에서도 ①,②,③은 부정문이지만 ④,⑤,⑥,⑦은 부정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긍정문이다.

한국어의 부정표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부정소를 포함하고 있는 부정문이다. 한국어에서는 ‘안, 못, 말-’을 부정소로 하는 부정을 말한다. 둘째는 어휘 속에 부정의 의미가 내재된 부정표현이다. 한국어에서는 ‘없다’, ‘모르다’, ‘아니다’ 등 부정의미를 내포한 어휘로 하는 부정을 뜻한다. 셋째는 부정소나 부정어휘를 쓰지 않은 수사적 부정이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대화의 환경에서 실현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한국수어에는 한국어에서처럼 부정부사인 {아니}, {안}, {못}과 같은 ‘부정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수어에서 부정문을 만드는 용어를 ‘부정어(否定語)’라고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수어에서 부정어는 [아니다], [안하다], [없다], [~적없다], [아직~하지않다], [못하다], [할수없다], [금지], [거절], [불가능], [말다] 등이 있다.

2. 부정문의 형성과 분류

1) 부정문의 형성

부정이라는 것은 최소한 문장 단위에서 다루어야 할 통사상의 문제이며, 이 부정의 의미적 특성이 긍정문과의 상호모순성에 기초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부정문의 조건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흥빈(1987:78)에서는 부정극성을 띤 성분과의 공기 현상을 보이지 않는 한, 국어의 부정문은 부정소 ‘아니’나 ‘못’ 혹은 부정 서술어 ‘아니하-’나 ‘못하’0 또는 ‘말-’과 같은 요소가 쓰인 문장을 부정문의 형성조건으로 보았다.

김석득(1992:719)에서는 부정문 형성조건을 그 기본 형식은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S는 P가 아니다)이다. 그런데 “부정”의 개념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거나(부정 단정), 옳지 않다고 반대거부배척하거나, 있음의 부정(없음0, 대비적 열등(-보다/만 못하다), 그리고 할 수 없음(불가능성)이나 정도에 못 미침(못하다), 행위금지(말라) 등을 내포한다고 보았다.

박정규(1996:32)에서는 국어의 부정문은 부정사 ‘아니’나 ‘못’ 혹은 부정 서술어 ‘아니하-’나 ‘못하-’ 또는 ‘말-’과 같은 요소가 쓰인 문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부정극성을 띤 성분들과 공기 관계에 놓일 수 있다고 보았다.

서정수(1996:949)에서는 부정문(부정문, negative sentence)이란 일반적으로 부정 요소가 쓰여서 서술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인하는 문장이라고 보았다.

허재영(2002:42)에서는 부정문의 개념을 1. 부정문은 주어진 언어내용을 ‘의미적으

로 인정하지 않는' 문장이다. ㄴ. 부정문은 긍정 판단을 전제하며, 긍정 판단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ㄷ. 부정문은 기능 범주로서 부정소를 통합한다고 정의했다.

박형우(2004:34)에서는 '아니, 못, 말-' 등의 부정소를 긍정문에 삽입한다고 해서 그 문장이 모두 부정문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긍정문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모순관계에 있는 어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부정문의 형성조건을 ① 부정문에 대한 긍정문 설정이 가능하다, ② 부정문은 긍정문과 의미적으로 모순 관계를 형성한다, ③ 일반적으로 부정소가 있는 문장은 부정문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허재영(2002)의 국어부정문의 통사론적 규칙과 박형우(2004:34)의 의미론적 부정문 형성조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수어의 부정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건 i: 부정문은 명사나 서술어 다음에 부정어 [아니다], [안하다], [없다], [~적 없다], [아직~하지않다], [못하다], [할 수 없다], [금지], [거절], [불가능], [말다]를 문장의 마지막에 두어야 한다.

조건 ii: 부정문에 대한 대당 긍정문이 있어야 한다.

조건 iii: 모순관계를 보이는 단어([모르다], [낮설다], [뭐가뵈지모르다] 등)가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 부정문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위의 조건 i 과 조건 ii 를 충족시키는 문장은 통사적 부정문으로 보고, 조건 ii 와 조건 iii 을 충족시키는 문장은 어휘적 부정문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한국어 관점에서 한국수어의 언어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그 번역문이 {아니}, {안}, {못}, {말-}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정문이라고 생각해왔던 견해는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2) 부정문의 개념

한국어에서 부정문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광수(1971)에서는 “부정소에 의한 구조 변형이 부정문”이라고 정의하면서, 부정문의 형성이 긍정문에서 비롯됨을 밝혔으며, 김영만(1982)에서는 '아니, 못, not'과 같은 부정소가 문장의 의미해석에 영향을 주는 문법적 작용이라고 부정문을 정의했다.

김영근(1983)에서는 부정소 '안, 못' 등이 술어동사와 결합하여 그 의미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고, 고영근·남기심(1985)에서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아니(안)'나 '못'을 쓰거나,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용언 '아니다, 아니하다(않다); 못하다; 말다'를 써서 부정문이 형성된다고 하여 주로 부정법 중심으로 부정문을 설명하였다.

김영옥(1986)에서는 한 문장에서 부정의 의미자질인 [부정]을 검출 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부정문이라고 하면서, [부정]을 검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세 가지 조건은 ①진리 조건[truth condition] ②상호함의[mutual entailment] ③부정부사와의 선택제약[xelectional restriction] 등이다.

권재일(1994)에서는 주어진 언어 내용을 의미적으로 부정하는 문법적 방법이라고

부정문을 정의했고, 박영순(1996)에서는 긍정문이란 어떤 명제가 사실이거나 주어진 용언이 수행되는 문장을 말하며, 부정문이란 명제가 사실이 아니거나 주어진 용언이 수행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긍정문과 부정문은 상호 대립적이며 긍정문은 무표적이고, 부정문은 유표적이라고 풀이한 바 있다.

박정규(1996)에서는 국어의 부정문은 부정사 ‘아니’나 ‘못’ 혹은 부정 서술어 ‘아니하-’나 ‘못하-’ 또는 ‘말-’과 같은 요소가 쓰인 문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부정극성을 띤 성분들과 공기 관계에 놓일 수 있다고 하면서 부정문을 형식적 요건에 따라 성립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서정수(1996)에서는 부정문이란 일반적으로 부정 요소가 쓰여서 서술 내용의 일부나 전체를 부정하는 문장을 이른다라고 보았다.

허재영(2002)에서는 ① 부정문은 주어진 언어 내용을 의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장이며, ② 부정문은 긍정 판단을 전제하며, 긍정 판단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③ 부정문은 기능범주로서 부정소를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학교문법에서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에 따르면 국어에서 부정 표현은 부정부사 ‘안, 못’과 부정 용언 ‘아니하다, 못하다’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국어의 부정문 정의는 부정문의 형성조건을 밝히는 바에 중점을 두고 있다.

- (3) a. 안 간다. / 가지 않는다.
- b. [가다][NEG #2]
- c. 안 갔다. / 가지 않았다.
- d. [가다][NEG #3-1]

(3a)와 (3c)를 보면 한국어에서는 부정소의 위치가 변한다. 거기에 반해 한국수어에서는 한국어에서처럼 부정어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한국어에서는 (3a)와 (3c)에서처럼 부정소의 위치가 서술어의 변화(간다-갔다/않는다-않았다)에 따라 통사적으로 반영되지만, 한국수어에서는 (3b)와 (3d)에서처럼 서술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부정하고자 하는 명사나 서술어의 다음에 부정어가 위치한다. 한국수어의 부정표현 양상에서 부정어가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규칙성을 보인다.

3) 한국어 부정문의 분류

한국어에서 부정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몇몇 학자의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영근·남기심(1993)에서는 부정문을 ‘안’부정문과 ‘못’부정문, 그리고 ‘말다’ 부정문

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의 경우에는 다시 ① 서술어 앞에 ‘아니(안)’이나 ‘못’을 넣는 방법과 ② 서술어인 용언의 어간에 어미 ‘-지’를 붙이고 그 뒤에 ‘아니다’를 써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편의상 ①의 방법에 의한 부정문을 ‘짧은 부정문’이라 하고, ②의 방법에 의한 부정문을 ‘긴 부정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 방식은 학교문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김석득(1992)에서는 부정법을 통어적 구조 형식과 형태적 구조 형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형태적 구조 형식은 고유어 부정앞가지(선-, 설-)를 이용하는 방법과 한자어 부정앞가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시 나뉘어진다. 그리고 통어적 구조형식으로는 ① 부정잡음씨 ‘아니다’ ② 부정그림씨 ‘없다, 못하다’ ③ 부정어찌씨 ‘아니, 못’ ④ 도움풀이씨(도움법)에 의한 방법 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어적 구조형식과 형태적 구조형식은 서로 넘나들면서 부정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③ 부정어찌씨가 앞에서의 단형 부정문에 해당하고 ④의 도움풀이씨를 이용하는 방법은 앞의 장형 부정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서정수(1994)에서는 부정의 방식을 문장 유형이나 성분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① 기본 부정법, ② 명령/청유 부정법, ③ 특수 부정법, ④ 접두 부정법, ⑤ 겹부정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부정법에는 선행 부정, 즉 단형(short form)과 후행 부정(post-verbal negation), 즉 장형(long form)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다. 서정수(1994)에서는 다른 분류와는 달리 이중 부정의 내용을 별도의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학자들의 분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한국어 부정문 유형 분류

	김석득(1992)	고영근·남기심(1993)		서정수(1994)	
통어적 구조형식	부정 잡음씨 ‘아니다’	‘안’부정문으로 처리		특수 부정법	
	부정 그림씨 ‘없다, 못하다’	‘못하다’는 ‘못’부정문으로 처리		‘못하다’는 기본부정법으로 처리	
	부정어찌씨 ‘아니, 못’	안, 못 부정문	단형	기본 부정법	선행 부정 후행 부정
	도움풀이씨	안, 못, 말다 부정문	장형	명령/청유 부정법	
형태적 구조형식	고유어 부정앞가지			접두 부정법	
	한자어 부정앞가지				
중복구조 형식				겹부정법	

박형우(2004)에서는 부정의 개념을 의미론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론적(어휘적) 부정

문'을 설정하고 있다. 부정소의 개입 여부가 부정문 형성을 결정한다고 보는 입장과 달리, 대당 긍정문의 설정이 가능하고, 그 긍정문과 부정문 사이에 모순 관계가 형성되는 용언이 쓰였다면 이들은 모두 부정문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죽다, 없다, 모르다' 뿐만 아니라 모순 관계의 설정이 가능한 여러 용언이 서술어로 쓰인 문장을 부정문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형태론적 방법으로 부정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해 온 부정 접두사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단어들도 서술어로 쓰인 경우에만 부정문에 포함시킨다.

4) 한국수어의 부정문의 분류

지금부터는 한국수어의 부정표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엄미숙(1996)은 국어의 부정법 실현에는 '아니다', '못하다', '말다' 부정법 등이 있으나 한국수어에는 보다 다양한 부정표현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즉, 한국수어 부정법의 실현을 '없다', '아직', '못하다', '아니다', '안되다', '말다', '모르다' 부정법으로 규명하였다.

(4) a. '없다' 부정법

얼굴이 찌그러지고 예쁘지 않다. ⇒ [얼굴][찌그러지다][예쁘다][없다]

b. '아직' 부정법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다. ⇒ [영화][보다][아직]

c. '못하다' 부정법

나는 편하지 못하다. ⇒ [나][편하다][못하다]

d. '아니다' 부정법

사람은 살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 [사람][살][끝][아니다]

e. '안되다' 부정법

잠이 오지 않는다. ⇒ [잠][안되다]

f. '말다' 부정법

노신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 [늙다][신부][걱정하다][말다]

g. '모르다' 부정법

나 너를 연결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인지 모른다.

⇒ [나][꿨다][어떤][관계][모르다]

엄미숙(1996)에서는 수화부정법에서는 고개 좌우의 움직임, 눈의 움직임, 입술의 움직임 등이 통합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윤병천(2004)에서도 수화부정법에서 수화와 함께 사용된 비수지 형태소는 대부분 얼굴을 좌우로 흔들고, 눈썹을 내리는 부정의 비수지 형태소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양경숙(2007)에서는 수화부정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조건 I 과 조건 II를 만족시키는 수화문은 통사적 부정문으로 보고 조건 II와 조건 III을 만족시키는 수화문은 어휘적 부정문이라고 보았다.

- 조건 I: 수화부정문은 그 문장 안에 수화 어휘 N₁, N₂, N₃ 가 포함되어야 한다.
- 조건 II: 수화부정문에 해당 긍정 수화문이 있어야 한다.
- 조건 III: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없다, 모르다, 아니다’를 가진 문장도 부정문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자가 지금까지 20여년을 수화통역과 수화교육을 하면서 보아 온 한국수어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정어 [아니다]는 사실 부정이고, [안하다]는 의지부정이고, [없다]와 [~적없다]는 상태부정이고, [아직 ~하지 않다]는 완료부정, [못하다]와 [할수없다]는 능력부정, [금지].[거절].[불가능].[말다]는 상황부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의 ‘안’, ‘-지 않-’ 부정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순부정을 나타낸다. 한국어의 ‘못’, ‘-지 못-’ 부정문은 발화된 명제 내용에 대한, 주체의 능력 유무를 나타낸다. ‘-지 말-’ 부정문은 말하는 이가 상대방의 행동을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뜻을 나타낸다.





부정의 개념을 의미론적으로 해석한 ‘의미론적(어휘적) 부정문’(박형우, 2004)에 근거하여 한국수어에서 나타난 부정문의 유형을 분류하면, 한국수어의 부정문 유형분류는 <표3>과 같다.

3. 한국수어의 부정

<표3> 한국수어의 부정문 유형

구분	부정어	의미	예문
NEG #1 (사실부정)	 [아니다]	어떤 사실을 단순부정할 때 쓰임.	[나][바보][NEG1] -해석:나는 바보가 아니다.
NEG #2 의지부정	 [안하다]	①주체의 의도가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고 싶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쓰임. ②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나 동작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때 쓰임. ③단순부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음.	[나][술][먹다][안하다] -나는 술을 안 먹는다.

NEG #3 상태부정	 1. [없다]	상태, 성질, 존재 부정을 할 때 쓰임.	[어제][비][없다] -어제는 비가 오지 않았다.
	 2. [~적없다]	①어떤 행위나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음을 나타낼 때 쓰임. ②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지 않았음을 나타낼 때 쓰임.	[나][비행기][타다][~적없다] -나는 비행기를 탄 적이 없다. [나][훔치다][~적없다] -나는 훔치지 않았다.
NEG #4 완료부정	 [아직~하지않다]	어떤 동작이나 행위의 완결을 부정할 때 쓰임.	[오늘][아침][아직~하지않다] -오늘 아침을 먹지 않았다. -오늘 아침을 안 먹었다.
NEG #5 능력부정	 1. [못하다]	주체의 의지는 있으나 능력부재, 외부적 요인 등으로 할 수 없을 때 쓰임.	[농인][듣다][못하다] -농인은 듣지 못한다. -농인은 들을 수 없다.
	 2. [할수없다]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해도 소용이 없음을 나타낼 때 쓰임.	[맹인][보다][할수없다] -맹인은 볼 수 없다. -맹인은 보지 못한다.

NEG #6 상황부정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때 쓰임.	[아이][칼][만지다][금지] -아이가 칼을 만지면 안 된다.
	1. [금지]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때 쓰임.	[돈][빌리다][거절]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2. [거절]		
NEG #7 기타부정		주체의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시도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쓰임.	[어제][모기][물다][잠][불가능] -어제는 모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3. [불가능]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지할 때 쓰임.	[놀다][말다][공부][하자] -놀지 말고 공부하자.
	4. [말다]		
NEG #7 기타부정	[모르다], [비다]	모순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서술어로 쓰여 부정표현을 하는 경우 어휘적 부정문으로 본다.	[나][한자][모르다] -나는 한자를 모른다.

Bellugi와 Klima(1966), Schlesinger Meadow(1972), Fisher(1974)는 부정의 습득 단계로 두 개의 요소를 지적했다. 하나는 수화를 하면서 머리를 흔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니다]같은 수화를 긍정문의 전 후에 사용하는 것이다. 청각장애아동의 지나친 일반화 단계에서 부정을 나타내기 위해 긍정의 수화를 거꾸로 한다는 것이다(석동일, 1989: 재인용).

물론 한국수어에서 부정문을 표현함에 있어서 수화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고개를 가로젓거나 고개를 외로 트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비수지기호(NMS)의 부정표지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수어 부정표현 중에서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 a. 수화문 : [나][남자/여자][아니다]
한국어 : 나는 남자/여자가 아니다.
- b. 수화문 : [나][바보][아니다]
한국어 : 나는 바보가 아니다.
- c. 수화문 : [오늘][덥다][아니다]
한국어 : 오늘은 덥지 않다. / 오늘은 안 덥다.
- d. 수화문 : [꽃][예쁘다][아니다]
한국어 : 꽃이 예쁘지 않다. / 꽃이 안 예쁘다.
- e. 수화문 : [나][담배][아니다]
한국어 :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나는 담배를 안 피운다.
- f. 수화문 : [지금][비][아니다]
한국어 :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다. / 지금은 비가 안 온다.
- g. 수화문 : [어제][비][아니다]
한국어 : 어제는 비가 안 왔다. / 어제는 비가 오지 않았다.

(5a)와 (5b)에서는 [아니다] 부정 표현이 사용된 경우로. 이는 사실에 대한 부정을 나타낸다. (5c~g)와 같이 [아니다]라는 부정 표현 외에도 [없다], [못생기다], [할 수 없다] 등의 부정표현도 사용되는데, 이는 시각언어인 수화의 공간성이 반영된 것으로 [없다]나 [아니다]로 표현하지 않고 ‘비가 오다’와 모순 관계인 [비다]나, ‘꽃이 예쁘다’와 모순 관계인 [못생기다]라는 부정표현으로 사용된 경우다. 음성언어인 한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요소인 수화의 공간이라는 요소가 부정표현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임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 (6) a. 수화문 : [나][오늘][아침][먹다][아직~하지않다]
한국어 : 나는 오늘 아침을 먹지 않았다. / 나는 오늘 아침을 안 먹었다.
- b. 수화문 : [나][결혼][아직~하지않다]
한국어 :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다.
- c. 수화문 : [오늘][늦다][잠][일어나다][아침][아직~하지않다]
한국어 : 오늘은 늦잠을 자서 아침을 먹지 못했다.

(6)에서는 완료부정을 할 때 사용되는 [아직~하지않다]라는 부정어가 한국어로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6a)에서는 ‘먹지 않았다/안 먹었다’로, (6b)에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아직 결혼을 안 했다’로, (6c)에서는 ‘먹지 못했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한국어의 부정문 분류로는 설명이 되지 않으며 한국수어에서 부정어[아직~하지않다]의 쓰임은 어떤 행위나 동작의 미완료나 미완성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a. 수화문 : [나][여자/남자][안하다]
 한국어 : 나는 여자/남자가 되고 싶지 않다.
- b. 수화문 : [나][술][먹다][안하다]
 한국어 : 나는 술을 안 먹는다. / 나는 술을 먹지 않는다.
- c. 수화문 : [나][고기][먹다][안하다]
 한국어 :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 나는 고기를 안 먹는다.
- d. 수화문 : [나][담배][안하다]
 한국어 :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나는 담배를 안 피운다.
- e. 수화문 : [원래][나][아침][먹다][안하다]
 한국어 : 원래 나는 아침을 안 먹는다. / 원래 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다.

(7)에서는 화자의 의지를 부정하는 표현으로써 [안하다]를 살펴보고자 한다. 화자의 의지를 부정하는 표현으로 나온 것은 [안하다] 부정표현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아니다], [할 수 없다], [생각][없다], [거절] 등의 표현도 사용된다. 이것은 의지부정을 표현함에 있어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수어에서는 모순관계에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 표현하는 경우도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 (8) a. 수화문 : [지금][비][없다]
 한국어 : 지금 비 오지 않는다. / 지금 비가 안 온다.
- b. 수화문 : [소리][없다]
 한국어 :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 소리가 안 들린다.
- c. 수화문 : [나][비행기][타다][~적없다]
 한국어 : 나는 비행기를 탄 적이 없다. / 나는 비행기를 타 본 적이 없다.
- d. 수화문 : [이명박][대통령][모르다][사람][없다]//[모두][안다]
 한국어 : 이명박이 대통령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한국어의 관점으로 보면 수화에서 ‘없다’라는 어휘가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것은 시각언어인 한국수어에서 공간이란 요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음식이나 물건이 쌓인 것에서 줄어들면서 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모습을 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없다’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비었다’나 ‘다 떨어지다’, ‘바닥나다’의 의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통역했을 때 ‘없다’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여, 한국수어에서의 [비다], [사라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없다’ 부정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8a)와 (8b)에서와 같이 [지금][비][없다]가 ‘~오지 않는다/안 온다’로, [소리][없다]가 ‘~ 들리지 않는다/안 들린다’로 표현되듯이 한국수어에서 [없다]는 ‘없다’, ‘~지 않다’의 형태로 해석되어진다. 상태, 성질,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적없다]는 (8c)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에 경험한 것에 대한 부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9) a. 수화문 : [나][듣다][못하다] / [나][듣다][할수없다]
한국어 : 나는 들을 수 없다. / 나는 듣지 못한다.
- b. 수화문 : [나][한자][못하다] / [나][한자][할수없다] / [나][한자][꼴찌]
한국어 : 나는 한자를 쓸 수 없다. / 나는 한자를 쓰지 못한다.
- c. 수화문 : [맹인][보다][할수없다] / [맹인][보다][못하다]
한국어 : 맹인은 볼 수 없다. / 맹인은 보지 못한다.
- d. 수화문 : [농인][듣다][할수없다]
한국어 : 농인은 들을 수 없다. / 농인은 듣지 못한다.

예문(9)에서는 능력부정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려고 한다. [못하다], [할수없다]는 객관적인 단순 부정을 나타내거나 의도는 있지만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타의에 의해 주체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을 나타내므로 흔히 능력부정, 또는 타의부정이라고 한다. 예문(9b)를 보면 한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꼴찌] 또는 [무(無)]라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능력부정을 표현함에 있어 ‘잘함-못함’이라는 모순관계에 있는 어휘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통사적으로는 부정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의미론적으로는 부정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미론적 부정문으로 해석하여 ‘어휘적 부정문’으로 볼 수 있다.

[못하다]는 확실하게 능력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할수없다]는 능력부정 외에도 거절이나 금지를 하는 경우에도 쓰인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이것은 수화학습자들에게도 [할수없다]라는 어휘를 이해하고 파악하기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상황에서는 ‘맥락과 상황’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이해될 수 있는 불명확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쓰이는 부정어라고 하겠다.

- (10) a. 수화문 : [아이][칼][만지다][거절]
한국어 : 아이가 칼을 만지면 안 된다.
- b. 수화문 : [이곳][담배][불가능]//[이곳][담배][중지/끊다]
한국어 : 이곳은 금연구역이다. /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 c. 수화문 : [여자][기숙사][남자][들어오다][불가능]
한국어 : 여자 기숙사에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
- d. 수화문 : [어제][모기][물다][잠][불가능]//[어제][모기][물다][잠][못하다]
한국어 : 어제는 모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다.
- e. 수화문 : [놀다][말다][공부][하자]
한국어 : 놀지 말고 공부하자. / 그만 놀고 공부하자.
- f. 수화문 : [돈][빌리다][못하다]//[돈][빌리다][거절]
한국어 :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다. //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예문(10)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부정의 양상과는 다른 ‘거절, 금지, 불가능’을 나타

널 때는 어떻게 부정표현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0a)를 보면 ‘아이가 칼을 만지면 안 된다’의 금지 상황에서 [금지]를 표현한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아주 다양한 부정표현들이 나왔다. 이것은 상황에 대한 화자의 관점이나 화자의 태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점은 상황부정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0d)에서 표현된 [불가능]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모기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있는 ‘잠을 잘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못하다]는 잠을 자려는 상황에서 모기의 출현으로 인해 화자가 ‘잠들지 못하는’ 불능(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능력 부정)을 나타내고 있어 상황에 대한 화자의 관점과 태도에 따라 부정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0f)는 ‘당신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중 일부이다. [돈][빌리다][못하다]의 경우는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지만 처음 만난 당신을 믿을 수 없거나,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 없을 때 쓰는 표현으로서 완곡적이고 간접적인 거절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반면에 [돈][빌리다][거절]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을 수 없어서 또는 당신은 신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지만 빌려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문(10)의 상황부정에서 농인들이 다양한 부정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는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나 언어로서 전승될 수 있는 토대가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화를 배우면서 풍부한 언어 환경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수화를 익히고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어릴 때 수화에 노출되기 이전부터 한국어를 익히기 위해 구화교육을 접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농교육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한국어 부정문의 간접현상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농인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수어의 언어현상 중에서 부정표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부정과 부정표현, 한국수어 부정어의 기능과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한국어의 부정문은 통사적으로 부정소 ‘안’, ‘못’, ‘말-’이 들어 있어야 부정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수어는 조사나 보조용언을 활용하지 않는 언어이기에 한국어의 부정소라는 개념에 들어맞는 것은 없다. 다만, 한국수어에서는 [아니다], [안하다], [없다], [~적없다], [아직~하지않다], [못하다], [할 수 없다], [금지], [거절], [불가능], [말다]라는 ‘부정어’를 활용하여 부정문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한국수어가 한국어에 비해서 부정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정어’가 많이 있는 까닭은 수화가 공간을 사용하며 서술어의 시상적인 부분이 작용하여 ‘부정어’에 보다 많은 언어정보가 담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부정, 의지부정, 상태부정, 완료부정,

능력부정, 상황부정이라는 범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정어’에 무엇을 부정할 것인지에 따라 선별되는 언어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한국어 부정표현에서는 통사적으로 단형부정과 장형부정으로 분류한다. 이에 반하여 한국수어의 부정표현을 분석해보면 부정유형은 하나 밖에 없다. 교착어인 한국어는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접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와 결합하여 문법기능을 수행한다. 고립어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국수어는 접사 없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결합하여 주로 어순으로 문법기능을 나타내므로 부득이 부정형식은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가 교착어의 특성으로 인해 부정유형이 다양한 반면에 한국수어는 고립어로서 부정유형이 단일하다.

한국수어는 완결된 행위의 부정은 사실 부정과 상태 부정으로 처리하고, 완결되지 않은 행위의 부정은 완료 부정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황 부정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화자의 심리적 태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부정표현이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 구종남(1992), 부정문의 통사적 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28.
- 권재일(1994), 한국어통사론. 서울 : 민음사.
- 김동식(1980), 현대국어 부정법의 연구. 국어연구, 42.
-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서울: 탑출판사.
- 김승국(1983), 한국수어의 심리언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근(1983), 한국어 부정의 속박 범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영옥(1986), 국어 부정문의 유형. 선청어문, 14 . 15, 서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 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박영순(1996). 한국어 의미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정규(1996). 국어 부정문 연구. 서울: 보고서.
- 박형우(2004). 국어 부정문의 변천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변지원(1992). 자연수화의 문형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신원재(1987). 현대국어 부정표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2002). 고등학교 문법. 서울: 두산.
- 서정수(1993). 국어부정법의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서정수(1996).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석동일(1989). 한국수어의 언어학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성광수(1971). 부정 변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2. 서울: 국어국문학회.
- 양경숙(2007). 한국수어의 부정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엄미숙(1996). 한국수어의 통사론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원성옥.강윤주(2002). 수화교육개론. 서울: 농아사회정보원.
- 윤병천(2004). 한국수어의 비수지신호에 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잠석(1991). 국어 부정문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이재연(2006). 한국수어의 부정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흥빈(1978). 부정법 논의와 국어의 현실. 국어학, 6. 서울: 국어학회.
- 임흥빈(1987). 국어 부정법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 10. 서울: 국어연구소.
- 최상배, 안성우(2003). 한국수어의 이론. 서울: 서현사.
- 황도순(1994). 농학생 수화의 통사구조와 발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허재영(2002). 부정문의 통시적 연구. 서울: 역락.
- Dahl, Osten(1979). Typology of Sentence Negation. Linguistics, 17.
- Givon, T.(1978). Negation in Language : Pragmatics, Function, Ontology.

Syntax and Semantics, 9.

Jespersen(1942). The Philosophy of Grammar. New York: Reprinted by Norton.

Kempson, Ruth M.(1984). Negation, Ambiguity and the Semantics Pragmatics Distinction. 언어, 9(2).

Lyons, John(1977). Semantics I &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lmy, Givon (이기동 역)(1985). 문법이해론. 범한서적.

7장 수어의 시제와 상

1. 시제(tense)

시제는 해당 언어 문법에서 어떤 행위가 의도하는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술 문법(Descriptive grammars)에서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미래 시제를 구분한다. 많은 음성 언어에서는 동사의 굴절(어형 변화)을 통해 시제가 표현된다. 그러나 중국어과 같이 동사의 어형 변화를 통해 시제를 표현하지 않는 언어도 존재한다.

Friedman(1975)과 같은 학자들은 초기 수어 언어학에서 일반적으로 수어 동사는 시제에 따라 어형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수어의 시제는 보통 타임 라인(time line)을 이용한 부사어를 통해 표현된다(Papaspyrou 2008; Metzger 2009; Pfau, Steinbach, Woll 2012). 타임 라인은 많은 수어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간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수어는 3차원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시간 정보를 공간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타임 라인은 공간을 통해 표현되고(공간에 배치되고), 수어 사용자는 타임 라인 상에서 서로 다른 지점이나 영역을 참조시킬 수 있다.

타임 라인은 미국수어(Friedmann, 1975; Bellugi/Klima, 1979), 영국수어(Brennan, 1983), 네덜란드수어(Schermer/Koolhof, 1990), 덴마크수어(Bergman/Dahl, 1994), 프랑스수어(Vourc'h, 1989), 이스라엘수어(Meir, 1999), 호주수어(Johnston/Schembri, 2007), 독일수어(Papaspyrou et al., 2008; Metzger, 2009) 같은 많은 수어에서 활용된다고 보고되어 왔다.

공통적으로 언급된 타임 라인은 다음과 같다(예, Twilhaar/van den Bogaerde, Beppie, 2016).

- 어깨 근처 앞-뒤 타임 라인
- 가슴 앞 앞-뒤 타임 라인
- 가슴 앞 좌-우 타임 라인
- 몸 앞 위-아래 타임 라인

1) 어깨 근처 앞-뒤 타임 라인

이 타임 라인은 수어 사용자의 우세 손 쪽 어깨 근처 공간으로, 수어 사용자의 바닥과 평행을 이루고, 몸 뒤에서부터 어깨를 지나 팔이 닿는 앞 공간까지 걸쳐 있다(Sutton-Spence/Woll, 1999, p.183,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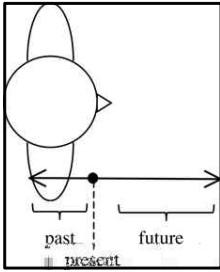


그림 1 어깨 근처 앞-뒤 타임 라인(Pfau, Steinbach, Woll, 2012, p.190)

어휘화된 수어든, 타임 라인 상에서 몸 뒤 공간은 과거에 사건이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수어 사용자가 몸 가까운 지점이나 어깨 바로 앞을 가리키면 사건이 현재 일어났을 나타내고, 수어 사용자가 타임 라인 상에서 몸 앞의 공간을 가리키면, 해당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일임을 나타낸다. 수어 사용자가 이 타임 라인 상에서 더 뒷공간을 가리킬수록 해당 사건은 더 과거에 일어난 일임을 나타낸다. 반대로 이 타임 라인의 더 앞공간을 가리킬수록 해당 사건은 더 미래에 일어날 일임을 나타낸다. 어깨 근처 앞-뒤 타임라인을 이용하는 한국수어 어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참조).



그림 3 어제



그림 4 옛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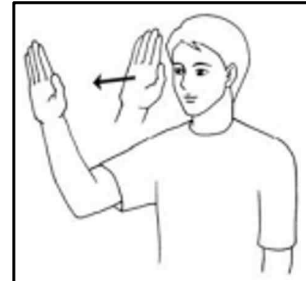


그림 5 미래

2) 가슴 앞 앞-뒤 타임 라인

수어 사용자들은 일부 경우, 가슴 앞의 공간을 타임 라인으로 사용한다. Papaspyrou et al.(2008) 같은 일부 저자는 이 타임 라인을 어깨 근처 앞-뒤 타임 라인의 변이라고 보는데, 어깨 근처의 타임 라인 사용이 해부학적인 이유로 제한 받기 때문이다. 수어 사용자가 타임 라인을 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슴 앞 앞-뒤 타임 라인을 더 선호할 수 있다. 가슴 앞 앞-뒤 타임 라인은 어깨 근처 앞-뒤 타임 라인처럼 잘 작동한다. 그러나 이때 수어 사용자의 몸이 아니라 비우세 손을 사용해서 참조 기준을 시각화하고, 그림 6과 같이 비우세손을 기준으로 우세 손을 이용해 타임 라인 상의 특정 지점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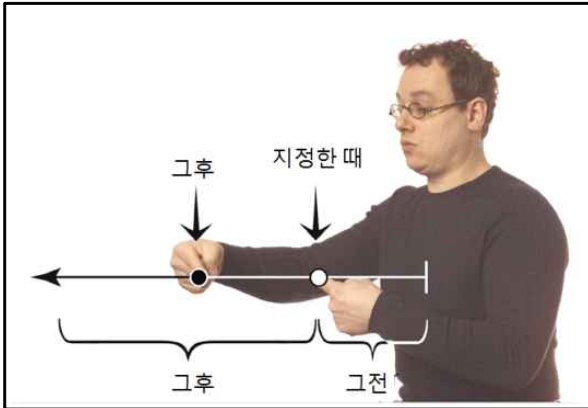


그림 6 가슴 앞 앞-뒤 타임 라인(Papaspyrou et al., 2008, p.67)

가슴 앞 앞-뒤 타임 라인을 활용하는 한국수어 어휘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시간

3) 가슴 앞 좌-우 타임 라인

가슴 앞 좌-우 타임 라인은 가슴 앞 앞-뒤 타임 라인과 유사하나, 몸에서 앞 방향이 아니라 몸과 평행하게 좌-우 공간을 활용한다. Papaspyrou et al.(2008)은 두 수어자간에 떨어져 있거나 이 타임 라인 상에서 많은 지점을 가리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일종의 변이라고 보았다. 이는 대화 상대방이 앞-뒤 타임 라인보다 좌-우 타임 라인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ennan(1983)은 영국수어에서 좌-우 타임 라인은 연속성 그리고/또는 지속 기간을 표현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림 8 가슴 앞 좌-우 타임 라인(Papaspyrou et al., 2008, p.68)

좌-우 타임 라인을 활용한 한국수어 어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 8 계속

4) 몸 앞 위-아래 타임 라인

이 타임 라인은 위-아래 수직 공간을 활용하고, 그 사람의 키 높이를 통해 사람의 일생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타임 라인의 활용은 사람의 연령을 나타내는데 한정된다. 위-아래 타임 라인을 활용한 한국수어 어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 9 자라다

어떤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 또는 미래에 일어날 것인지 표현하기 위해, 수어 사용자는 수어 문장 앞에 시제가 표시된 수어를 제시한다. 이렇게 표시된 시제는 새로운 시제가 표현될 때까지 유효하다. 시제 관련 표현이 없다면, 해당 문장은 담화 중 이전에 표현된 시제에 따라 해석되거나 현재 시제로 해석된다.

2. 상(Aspect)

수어에서는 시제에 따른 어형 변화는 없는 편이나, 많은 수어들에서 상 표시가 풍부하게 발달해 있다. 시제(tense)처럼, 상(Aspect)은 시간 개념과 관련된 문법 범주다. 그러나 시제가 다른 시점(보통 말하는 시점)과 관련해서 해당 사건의 타임 라인 상에서 어느 시점인지 전달하는 것이라면, 상은 어떤 사건의 내부 시간 구조(internal temporal structure)와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수어 언어학자들(Baker et al., 2016)은 동사를 통해 표현되는 세 가지 형태의 상을 구분한다: 지속 상(continuative aspect), 반복 상(iterative aspect), 습관상(habitual aspect).

지속 상은 해당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간격이 보통의 경우보다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속 상은 상태가 동사가 표현하고 있는 상태나 사건이 지속되고 있고,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지속 상 표시가 수반된 동사 ‘공부하다’는 ‘오랫동안 공부하다’를 의미한다. 지속 상 표시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는 수어들마다 매우 유사하다. 대부분의 수어들은 ‘느린 반복-반복(slow re-duplication)’으로 지속 상을 표현한다(Pfau, Steinbach & Woll, 2012)

반복 상은 어떤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남을 표현하고, 해당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나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일어남을 의미한다. 보통 이 반복 상은 동사의 움직임을 여러 반복(re-duplication)하는 것을 통해 표현된다. 또한 많은 수어들에서 움직임을 반복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다.

습관 상은 어떤 사건의 반복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복 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특정 사건의 질을 묘사하기 보다는 습관 상은 사건들이나 행동들의 패턴을 나타낸다. 반복 상과 달리, 습관 상은 반복의 끝이 있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습관 상은 ‘규칙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라고 번역될 수 있으며, 수어들에서 반복 상보다 상대

적으로 작고 빠른 움직임으로 흔히 표현된다(Pfau, Steinbach & Woll, 2012).

또한 수어의 상은 하나의 수어 어휘(sign)로 표현될 수 있다. 독립 형태소로 구성된 독립 상 표지는 다양한 수어들에서 확인되어 왔다. 독일수어에서는 FERTIG라는 수어 어휘가 존재하는데, 어떤 과정이나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Papaspyrou et al., 2008). 유사한 독립 형태소가 미국수어(FINISH)에도 존재하고, 이탈리아수어(DONE), 이스라엘수어(ALREADY), 그리스수어(BEEN, NOT-BEEN, NOT-YET), 영국수어, 스웨덴수어, 터키수어에도 존재한다(Pfau, Steinbach & Woll, 2012).

참고문헌

- Baker, A., Van den Bogaerde, B., Pfau, R., & Schermer, T. (2016). *The linguistics of s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erman, B., & Dahl, Ö. (1994). Ideophones in sign language? The place of reduplication in the tense-aspect system of Swedish Sign Language. In Carl Bache, Hans Basboll & Carl-Erik Lindberg (Eds.), *Tense, aspect and action: empirical and theoretical contributions to language typology* (pp. 397-422). The Hague: Mouton.
- Brennan, M. (1983). Marking time in British Sign Language. In Jim Kyle & Bencie Woll (Eds.), *Language in sig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sign language*(pp. 10-31).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symposium of sign language research in Bristol, U.K. in July 1981. London: Croom Helm.
- Friedman, L. A. (1975). Space, time, and person reference in American Sign Language. *Language* 51(4), 940-961.
- Johnston, T., & Schembri, A. (2007). *Australian Sig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ign languag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ima, E. S., & Bellugi, U. (Eds.) (1979). *The signs of language*.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Meir, I. (1999). A perfect marker in Israeli Sign Language. *Sign Language and linguistics*, 2(1), 43-62.
- Metzger, C. (2009). *Zeitlinien und temporale Gebärden in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Hamburg: Signum.
- Papaspyrou, C., von Meyenn, A., Matthaei, M. & Herrmann, B. (2008). *Grammatik der Deutschen Gebärdensprache aus der Sicht gehörloser Fachleute*. Hamburg: Signum.
- Pfau, R., Steinbach, M., & Woll, B. (2012).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Roland Pfau, Markus Steinbach & Bencie Woll (Eds.), *Sign Language: An International Handbook* (pp. 186-204). Berlin: Walter de Gruyter.
- Schermer, G. M. & Koolhof, C. (1990). The reality of time-lines: Aspects of tense in SLN. In Siegmund Prillwitz & Tomas Vollhaber (Eds.), *Current trends in European Sign Language Research*(pp. 26-29). Proceedings of the 3rd European Congress on Sign Language Research. Hamburg July, 1989. Hamburg: Signum.

Twilhaar, J. N., & van den Bogaerde, B. (2016). Concise Lexicon for Sign Linguistics.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Vourc'h, A. (1989). Time lines in LSF. Unpublished Manuscript.

8장 수어 습득

미국을 중심으로 한 1970년대의 수화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수화의 습득과 사 용이 구어와 비슷한 처리 기제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 화가 진정한 의미의 언어라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특히 초기의 수화에 대한 심리언어 학적 연구들은 언어가 가지는 보편적 자질이 수화에도 존재하는지, 즉 표현 양식이 다르더라도 일반화할 수 있는 언어 습득과 처리 기제가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것들이 었다. 이러한 심리언어학적 연구에서 얻은 일반적인 결론은 수화의 습득 과정과 단계 뿐 아니라 언어 이해와 산출의 과정과 주요 구조들이 언어의 양식과는 관련이 없이 공통적이라는 것이다(Gee & Goodhart, 1985) 이 장에서는 농아동들이 어떠한 언어 환경에 놓이는지를 알아보고, 농부모 밑에서 태어나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수화를 습득하는 과정과 듣는 부모 밑에 태어나 수지부호 형태의 수화(수지 한국어 또는 수 지 영어)에 노출되어 수화를 습득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수화를 사용하는 농부모 밑에서 태어난 농아동은 듣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듣는 아 동들과 마찬가지로 언어 환경에 놓이며 비슷한 발달 과정을 거친다. 한국 농 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화 언어 획득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본 장에서는 미국 농 유아의 미국 수화 습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수화언어도 어 떤 나라의 언어든지 공통적인 발달 과정을 가지므로 한국수화 습득 발달 지표의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1. 초기 조음 발달 특성

수화언어에서 혀와 입처럼 조음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손, 손가락, 몸, 시선, 얼굴 등이다. 언어 습득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 어린 유아는 조음기관에서 다양한 음을 만 들어내기 위한 미세한 조절이나 통제가 어려워 모국어의 모든 음운을 바르게 조음하 지 못한다. 그러다가 발달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즉, 복잡한 음운의 조직은 모음 중성화, 대치, 동화 등의 절차를 거쳐 단순화시켜서 습득하다가 만 7세 경에 어려운 음운까지 정확하게 조음하게 된다(김진우, 2001). 이러한 음운 습득의 순 서와 형태는 인간의 선천적인 기제에 의해 어떤 언어에서든지 유사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이미 밝혀졌다.

수화의 습득 과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음성언어 습득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수화의 조음기관은 음성언어의 조음기관인 혀나 입보다 비교적 통제가 쉬워 음성언어보다 빨리 발달한다. 그러나 수화에서도 음성언어에서와 마찬가 지로 오조음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 소위 아기식 말(baby talk)이 존재한다.

수화의 수형은 그 습득 과정에 따라 무표 수형(unmarked handshapes)과 유표수 형(marked handshapes)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무표 수형이란 단순한 손 운 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조음이 쉬우며, 유표 수형이란 미세한 손가락의 통제가

필요하므로 조음이 어렵다. 따라서 수화 습득과정에서 무표 수형이 먼저 나타나고 그것이 유표 수형으로 분화해 가는 과정을 밟았다. 또한 농아동의 수화 습득 과정을 보면, 음성언어 습득에서 나타나는 대치, 중성화 같은 특성이 나타났다. 즉, 음성언어 발달 과정과 마찬가지로 조작성이 어려운 유표 수형은 무표 수형으로 대치하거나, 모음이 중설모음으로 대치하는 모음 중성화가 있듯이 수화에서도 미분화 중간음에 해당하는 부정형 수형이 보였다(김철관, 1999). 이는 수화는 손과 손가락이 조음기관에 해당하여 혀나 구강의 통제에 비해 쉽기는 하지만 운동적 수준이 아니라 언어적 기능으로 볼 때는 음성언어와 같은 발달을 보인다는 것이다. 유아가 음성언어를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음운적 오류 형태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화에서도 오류 형태를 보면 음성언어의 발달 과정과 같다. 즉 수화언어 발달 과정에서도 음성언어처럼 대치, 생략, 첨가, 동화 현상이 나타난다(Lidell & Johnson, 1989)

도리고에 다카시(鳥越 隆士, 2001)는 일본 수화 발달 과정에서도 보면, 음성언어에서처럼 유아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수화 표현 즉 아기식 수화(baby sign)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마치다]라고 하는 수화의 경우 조음이 어렵기 때문에 농 유아들은 단순화 시켜 수화를 한다고 하였다. 즉, 원래 [마치다]는 손바닥이 안쪽을 향하도록 위로 편 두 손의 손끝을 모으면서 아래로 내린다. 그런데, 농 유아들은 아래로 내리는 움직임은 없이 그냥 편 손을 모아 쥐기만하거나, 손을 모아 쥐지 않고 단순히 손을 아래로 내리는 식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수화는 동시성을 가진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수형과 수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못하고, 수동 없이 수형만이 먼저 나타나거나 수형 없이 수동만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계기(繼起)적 출현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아기식 수화에 대한 연구가 한국 수화에서는 발달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12개월경 [먹다]라는 수화를 할 때 보면, 1에서 4지까지의 손가락을 붙여서 그것을 입에다 갖다 대어야 하는데, 손가락을 다 벌린 채 손바닥을 입에 갖다 대는 것과 같은 아기식 수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수화 습득 과정

Luetke-Stahlman(1998)은 McIntire(1977), Maxwell(1980), Schlesinger와 Meadow(1972), 그리고 Fischer(1973) 등의 연구들을 고찰하여 수화 습득 발달 지표를 제시하였다.

생후 3개월경 수화를 사용하는 농부모 밑의 농 유아는 수화 용알이를 하였다. 그리고 영어 지문자T 수형이 가능하다. 이는 음성언어 발달에서 유아들이 용알이를 하고 모국어의 음운과 비슷한 소리를 발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 후 6개월경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을 우물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첫 수화 단어는 9개월에 출현하는데, 늦은 경우는 12개월 첫 수화 단어를 발화하기도 한다. 이는 음성언어가 12개월을 전후로 하여 첫 단어가 출현하는 것보다 조금 빠른 것으로 아마도 혀와 입의 조음운동

보다 손의 조동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 나타나는 첫 단어는 수동 없이 수형만 나타나다가 나중에 수동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즉, 동시에 수형과 수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형이 먼저 나타난 후에 수형과 수동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11개월에는 30개 정도의 수화어휘를 이해하였다. 13-14개월에는 고개를 흔들며 부정 의미의 NO라는 수화를 하고, 두 개의 수화를 연결하여 표현하였다. 이는 음성언어에서 한 단어 문장이 나타난 후에 두 단어 문장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16개월에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질문에 바르게 반응하였으며, 17개월에는 HOME? CAR? 와 같은 질문을 하는 등 의문문을 산출하였다. 18개월에는 수화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기식 수화가 아니라 성인이 하는 수화와 거의 비슷한 수화를 산출하였다. 19개월에는 참조, 요구, 코멘트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수화를 산출하였다. 22개월에는 수화 절을 산출하고, 모양이 비슷한 수화 단어들을 변별할 수 있었다.

23-24개월에는 ‘손가락으로 지적하기(pointing)’ 체계에 숙달하여 행위자, 수동자, 소유격 등의 다양한 의미 표현을 하였다. 수화에서 ‘손가락으로 지적하기’는 매우 중요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수화 공간을 지적하면 그 공간이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등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 따라서 이 손가락으로 지적하기의 출현은 음성언어에서의 문법형태소의 출현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는 한국어 발달에서 아동들이 처음에는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를 사용하지 않고 전보문식 문장으로 말하다가, 점차 조사를 통해 주어와 목적어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26개월에서 30개월에는 보다 복잡한 수화 문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주위에서 보이는 지문자 단어들도 따라해 보는 등 지문자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0개월에서 34개월에는 분류하기, 명명하기 실제 사람과 대상의 속성을 기술하기 등을 할 수 있으며, 의문문과 부정문의 형태도 표현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발달 순서는 음성언어의 발달 순서와 유사하다.

3. 듣는 부모 밑의 농아동의 수화 습득

1) 생득화 가설

Goodhart(1984)는 듣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수지 영어 환경에서 자란 농아동도 자신들의 수화에 미국수화와 비슷한 형태를 도입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투입 환경에 있는 유아들의 언어 획득 과정을 “생득화 가설(nativization hypothesis)”로 설명하였다. 이 생득화 가설은 제1언어 획득, 제2언어 획득, 혼합어화(pidginization), 크리올화(creolization)의 과정 모두를 같은 개념 틀로 설명한다. 이 가설은 언어를 표현하는 일련의 내적인 규준(internal norm)과 같은 생리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언어의 발달 상황에서 만약 언어 투입 환경이 어떤 이유로든지 부적절하거나 투입언어에의 접근이 어렵다면, 인간은 그들 자신의 내적인 규준의 기초 위에서 문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생득화

(nativization)라고 한다. 만약 언어 투입 환경이 적절하다면 인간은 그들의 문법을 투입언어의 바탕 위에 형성하여 그들의 내적 규준에 의한 제한 내에서 변형을 시키는데, 이 과정을 “탈생득화(denativization)”라고 한다. 즉 생득화(nativization)란 내적, 생리학적으로 상세화된 규준을 기초로 문법을 만드는 것이고, 탈생득화(denativization)란 투입언어(input)에 의해 상세화된 형태를 기초로 문법을 만드는 것이다.

정상적인 제 1언어 획득에서는 아동의 인지적 한계와 처리과정 상의 제한 때문에 처음에는 투입 언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아동은 처음에는 생득화 과정에 많은 투자를 한다. 이것이 바로 아동이 성인처럼 말하지 못하는 이유이며, 그들의 내적 문법이 어떤 언어에서든지 비슷한 이유이다. 성숙됨에 따라, 아동은 투입 언어에 점점 더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투입언어에 의해 상세화된 문법을 형성하는 탈생득화 과정을 거쳐 자신의 모국어 문법을 형성한다. 그러나 아동이 투입 언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는 일관성 있는 문법규칙들을 귀납해 낼 수가 없으므로 언어의 내적 규준에 따라 주어-동사-목적어와 같은 어순을 택하거나 한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생득화 과정이다.

2) 수지부호 환경에서의 언어 습득

농아동의 수화 언어(signed language) 획득에 관한 연구도 이 생득화(nativization)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대부분이 수화를 조금 하거나 할 줄 모르는 듣는 부모 밑의 농아동의 언어 환경(input)은 초기부터 일관성 없고 다양한 혼종어 환경인 크리올 아동보다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아동의 듣는 부모와 듣는 교사는 대부분 완전한 언어인 수화보다는 수화기호를 빌어와서 음성언어의 문법에 따라 나타내는 형태의 수화인 수지 한국어(한국어 대응 수화)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수지 부호 형태의 수화는 접근이 가능하거나 적절한 언어환경(input)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증거들이 있다. 또한 이러한 수지 부호 형태의 언어 환경에는 일관성 있게 충분히 노출된다 하더라도 농아동은 수화를 할 때 자연수화(ASL)와 유사한 형태를 도입한다(Supalla, 1991).

예를 들면, “자동차가 가다.”라는 문장을 수지 한국어로 하면 [자동차]라는 수화를 하고 다음에 [가다]라고 하는 수화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배운 농아동도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개의 수화 단어를 나열하지 않고 한국수화로 한다. 즉, ‘자동차’ 수화의 수형을 하고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움직여(수동) ‘가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말하자면 ‘자동차’라는 주어는 수형으로 실현되어 [가다]라는 동사에 통합되므로 하나의 수화인 [자동차가 가다]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수화인 한국수화가 갖는 동시성이다.

그러면 왜 음성언어 문법에 기초한 수화인 수지부호들이 부적절한가 하며, 왜 언어로서 기본적인 필요조건을 갖춘 자연수화 형태를 접한 적이 없는 농아동조차도 내적

문법을 토대로 해서 자연수화와 유사한 형태를 도입하는가 하는가? 그것은 언어를 획득하는 아동은 경제적인 언어, 즉 효율적인 언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Solbin, 1977). 수화 언어의 조동기관은 음성언어의 조음기관보다 더 큰 근육이므로 음성언어보다 그 속도가 느리다. 따라서 빠르고 효율적인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형태론적으로 통합적이어야 한다. 즉, 시각 언어체계인 자연수화가 동시성이란 특성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언어의 효율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화를 하는 수화자는 완벽하게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지부호와 같이 연속적인 체계를 자연수화처럼 동시성을 가진 체계로 바꾼다. 이 때 농아동이 도입하는 형태들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언어양식의 제한 내에서 내적 문법 규준에 의해 만들어 진다. 그리고 언어로서의 기본 필요조건은 자연수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일치한다고 Gee와 Mouny(1991)는 주장한다.

참고 문헌

- 김진우(2001). 언어학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김철관(1999). 수화지도의 이론과 실제. 인천: 인천성동학교.
- 鳥越 隆士(2001). 手話. ことば.ろう教育 全日本聾啞連盟 日本手話研究所
- Gee, J.P., & Goodhart, W.(1985) Nativization, linguistic theory, and deaf language acquisition. *Sign Language Studies*, 49, 291-342.
- Gee, J. P., & Mounty, J. L.(1991). Nativization, Variability, and Style Shifting in Sign Language Development of Deaf Children of Hearing Parents. In Siple, P. & Fischer S. D.(Ed.), *Theoretical Issues in Sign Language Research, Volume 2: Psych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odhart, W. (1984). Morphological complexity, ASL, and the acquisition of sign language in deaf children. Ph.D. diss., Applied Psycholinguistics Program, Boston University.
- Lidell, S., & Johnson, R. (1989). American Sign Language: The phonological base. *Sign Language Studies*, 64, 159-278.
- Luetke-Stahlman, B. (1998). *Language Issues in Deaf Education*. Hillsboro, OR: Butte Publications, Inc.
- Slobin, D.I (1977). Cognitive prerequisites for the development of grammar. In *Studies of child language development*. ed. C. A. Ferguson and D. I. Slobi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Supalla, S.(1991). Manually Coded English: The Modality Question in Signed Language Development. In Siple, P. & Fischer S. D.(Ed) *Theoretical Issues in Sign Language Research, Volume 2: Psych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